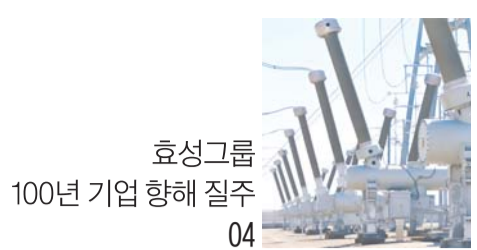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8930.30	코스닥	887.81
	(+459.28)		(-21.50)
금리	3.757	환율	1542.40
	(-0.015)		(+0.60)



## 백화점 '호조', 마트·면세점 '직격탄'

**'초고환율' 유통가 희비**  
百 3사, 명품소비 늘어나고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전망 대형마트, 신선식품 환율 부담 직소싱 확대, 원가절감 나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9원을 터치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국내 유통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 환율이 수입 원가 부담을 키우며 대형마트와 면세점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반면,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로 백화점 업계는 사상 첫 외국인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같은 환율 급등이 업체별로 전혀 다른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업체별 실적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백화점 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내수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명품 소비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 외국인 매출은 롯데백화점이 110%, 신세계백화점이 13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

승세를 보였다. 원화 약세로 한국 쇼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명품·주얼리·시계 등 고가상품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연간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명품 브랜드의 공급이 인장 가능성이 있어 성장세 지속 여부는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장비구니 물가와 직결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

트와 SSM 매출은 식품군 부진으로 각각 5%, 8% 감소했다. 활라스터, 연어, 수입 과일 등 신선식품은 환율 변동 부담을 기업이 흡수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이마트는 연어 결계 통화를 다변화하고 새우 수입선을 조정했으며, 롯데마트는 대량 계약과 직소싱을 확대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원산지를 다변화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남아공에 충격패... 32강 '먹구름'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0-1로 패한 대한민국 손흥민이 아쉬워 하고 있다. <관련기사 L2면> /뉴스

## 美 상장 SK하이닉스... 주가 추가상승 기대감

주가 13% 올라 291만7000원 신주 발행, 설비 투자 이어져 메모리 공급 확대 등 긍정요인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진출 소식이 주가가 강세다. 나스닥 상장으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시장 상장시 외국계 투자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동성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3.06% 상승한 291만7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한 때 298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주식예약증서(ADR) 나스

닥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4535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란 소식이 호재가 됐다.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면 주가 상승의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내년, 내후년 실적도 유례없이 좋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증권사들은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압장에서 주식 가치 회복에 도움이 있지만 향후 설비 투자로 메모리 공급능력과 수익성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7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상승을 전망치를 기준 25.3%에서 43.7%로 상향했다"면서 "이를 반영한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449조원으로 3.3% 올려 잡았다"고 했다.

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나 나스닥100지수 등에 편입될 길도 열린다. 앞서 상장한 TSMC도 대만 본주 대비 1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ADR 상장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편입 가능성을 기대한다"면서 "공모 기준가 기준 시가총액(300억달러)은 SOX 지수 내 25위에 해당한다. 1:0.1 발행 비율로 1억7900만주가 상

장돼 거래량 조건도 무난하다. 내년 9월 정기변경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SOX 지수 추종 수급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DR 상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CE 반도체 지수,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생겼다"며 "지수 편입 시점은 나스닥100이 가장 빠를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가장 큰 지수가 가장 빠르게 편입이 예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6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 "반도체 성장 효과, 지방확산 못해 지방과 윈윈 '모두의 성장' 이뤄야"

李 대통령, 수보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5일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높아진다고 지적한 셈이다. 정부와 재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나 관련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있었다. 투자 계획은 오는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 합동회의'에서 발표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 28일 '제2회 6·25전쟁 남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 개최
- ▲ 與 한정에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발의
- ▲ 전북 찾은 정청래 "출마 선언 시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 ▲ 김용민 '당대표 출마 여부'에 "전당대회 출마, 긍정적으로 검토 중"
- ▲ 김민석 "정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국회 결정 존중"
- ▲ 한동훈 "반도체 산업, 與 명칭대전 전당대회용 출마 아니"

# K-방산, 유럽 점점 확대... ‘전략적 동반자’ 수출 체질개선

현지기업 플랫폼·공급망 진출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 고도화 “K-방산, 수주흐름 이어질 것”

국내 방산기업과 유럽 방산업체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 기업의 플랫폼에 한국 무기체계를 결합하거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 방식도 단순 공급에서 전략적 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유럽 기업과의 공동 개발과 현지 사업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플랫폼과 영업망을 활용하고, 국내 업체의 검증된 무기체계와 양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열린 유로사토리 2026에서 프랑스 탈레스와 다연장로켓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탈레스의 X-Fire 다연장로켓 플랫폼에 한화의 80km, 160km,



천무 다연장로켓



천공II 사격 이미지

290km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유럽 플랫폼과 한국 유도미사일을 결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의 천무 유도미사일은 국내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았고 폴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 실적을 확보했다. 탈레스와의 파트너십은 유럽 주요국의 방위산업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한화가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유도탄 현지 생산 기반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도 유로사토리 2026에서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방공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사는 유럽 내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LIG D&A의 천공-II와 L-SAM 등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해 통합 방공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거리 방공(SHORAD)용 신규 미사일 체계 공동 개발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유럽 방산시장 확대는 국내 업체와 유럽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향후 5년간 약 두 배 늘어 2030년 8000억유로(약 140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공망과 장거리 타격체계, 탄약 생산능력 확충 수요가 커지면서 검증된 무기체계와 생산 역량을 갖춘 국내 업체와의 협력 여지도 넓어지고 있다.

유럽 내 방산 공급망 강화 기조도 진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의 유럽 사업은 완제품 수출이나

현지 생산시설 구축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에는 유럽 기업의 플랫폼에 국내 유도미사일을 통합하거나 방공체계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기업은 플랫폼과 영업망, 현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업체는 무기체계와 양산 역량을 결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이 자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에는 모든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공동 개발과 현지 사업을 앞세운 협력 모델이 유럽 시장 공략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이 역내 조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자체 공급망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증된 무기체계와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산업체를 찾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동결해야” vs “대폭 인상”

(경영계)

(노동계)

경영계 “고용감소 등 부작용 초래” 노동계 “생계비 간극 매년 벌어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로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소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대비 1680원(16.28%)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월급(215만6880원)보다 약 35만 원 많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탄신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류 사무총장은 “2026년 불가상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운데),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경수 수습기자

승물을 고려한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15만원과 약 67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처럼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간극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올해만큼은 전년 대비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임을 다시 한번 밝

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에 다다른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전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와 무더기 폐업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다.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며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해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라며 “동결안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화하고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맞섰다.

양육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갹내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인상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냐는 질문에는 신규채용 줄이거나 기존 인력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며 “지불능력 넘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열리는 첫 전원회의로, 통상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

이학찬·박경수·채리나 수습기자



## 정책금융기관, 한·미 조선협력 투자 ‘시동’

주요 조선사 업무협약 체결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조선사 간 한·미 조선협력 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1500억 달러(231조 원) 규모의 조선 부문 투자의 이행을 위한 행보다.

정책금융기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다. 조선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함께했다.

협약을 계기로 공사, 정책금융기관, 조선사 등 협약 당사자들은 한미 조선협력 투자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상호 간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 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조선3사간 한미 조선협력투자 MOU 체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수은 본점

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조선 협력 투자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며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 조선사·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눠 질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나아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순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찬성표 비율은 92.03%(3만 4371명)를 기록했다.

현재 노조는 올해 협상안으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 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 배급(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



# 원·달러 1500원 돌파... 수입물가 급등에 생활물가 '비상'

## 고환율 뉴노멀 시대

### 다시 고개 든 인플레이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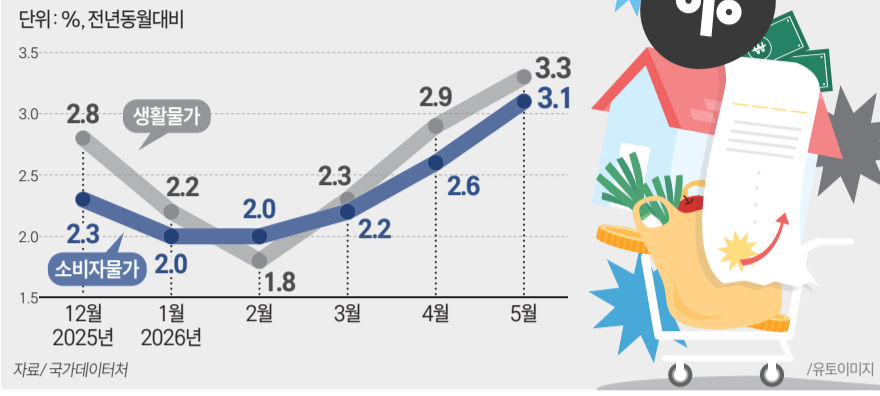
5월 수입물가, 전년비 24.8% 급등 원유·석유류 뛰며 생산비 부담 확대 기업 비용 상승, 제품값 인상 우려 식품·에너지 중심 체감물가 압박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서 고환율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와 원자재, 식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4.8% 올랐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20.5%보다도 상승률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원유가 전년보다 72.7% 급등했고 나프타와 병커유가 각각 84.7%, 73.2% 오르는 등 동등 경쟁 영향을 많이 받은 석유류 관련 품목의 상승폭이 컸다. 글로벌 유가(두바이유 기

## 소비자물가·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준)는 지난달 배럴당 평균 103.15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 올랐다.

### 고환율, 생활물가 덮치나

문제는 이렇게 오른 수입물가가 고환율을 만나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정유·화학·식품업체 등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으나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p) 뛰면서 3%대가 됐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23.19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쌀은 1년 전보다 13.5%, 달걀은 10.2%, 파는 15.7% 올랐다.

생활물가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품과 생활품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와 직결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

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 열려났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생산자물가도 '꿈틀'

물가의 선형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2.5%였다가 3월 4.1%→4월 7.2%→5월 8.50%로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를 끌어 올리고,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을 높여 생산비 부담을 키우고 결국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하반기 물가 안정 흐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 1면 '백화점 호조...'서 계속

### 외국인 관광객 늘어도 면세점 수익성 압박

면세업계는 수요와 수익성이 엇갈리는 상황에 놓였다.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주요 면세점들은 대체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상품을 달러로 매입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위축 우려로 판매가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만큼 수익성 방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인터넷면세점을 중심으로 환율 보상 쿠폰과 제휴 할인, 적립금 프로모션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마케팅 비용 증가가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율 변동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화·달러 병행 표기 등 가격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국금센터 "AI가 떠받친 세계경제... 유가·금리·강달러가 하반기 복병"

## AI·석유·국채·금리 4대 변수 제시 2분기 저점 뒤 회복, 메모리 호황 원유 차질 땀 유가 재급등 우려 고물가·강달러에 변동성 확대

국제금융센터(국금)가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인공지능(AI) 투자와 석유시장, 국채금리, 주요국 통화정책을 꼽았다. AI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끌겠지만 고물가와 공급 충격, 강달러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전망' 설명회에서 국금은 올해 하반기를 '고물가와 공급충격 속 AI 회복력이 시험받는 시기'로 규정했다. 세계경제는 AI 투자 효과에 힘입어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유가와 금리, 환율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금은 하반기 핵심 변수로 ▲AI 투자



25일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석유시장 ▲국채시장 ▲주요국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 ◆ AI 투자 지속...메모리는 '구조적 호황' 기대

국금은 AI 투자가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와 증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AI 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증시 역시 AI 산업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투자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학습

인프라에서 범용 메모리와 CPU, 서버 부품 등 추론(Agentic AI) 인프라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락 국금 부장(자금유출입분석부)은 "AI 생태계 전반의 레버리지 부담에도 미국 기업들의 주도가 투자 지속성을 지지하고 있지만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며 "투자수익성 압박과 물리적 한계, 상호 의존성 리스크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는 올해 전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 투자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인여현금흐름 감소로 외부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전력망 확충 등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장은 "향후 2~3년간 AI 투자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이다"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는 AI 인프라 수요와 장기 공급계약 확산으로 구조적인 호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 ◆ 유가·환율 불안... "변동성은 계속"

국금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시장이 공급 리스크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이 가격에 선반영됐지만 실제 원유 공급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정석 국금 실장(국제원자재시장담당)은 "시장은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랍세운 운항은 재개되고 있지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인세운 유조선 흐름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금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석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 실장은 "기대와 달리 중동 석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고 문제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위기 현실화 시 국제유가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수준으로 급등한 후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강달러 기조 속에서도 경수수지 흑자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 기조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이상원 국금 외환분석부장은 "현재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평균치를 보면 14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과 외국인 리밸런싱 자금 유출이 진행 중이지만 경수수지 흑자가 앞선 요인들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국 주식투자 늘고, 증시 올라... 대미 금융자산 첫 1조달러

미국 비중 47.1%, 3년 연속 최고치 증권투자 8028억달러로 증가 주도 주식 순매수 확대·현지증시 상승 영향

미국 주식 투자 확대와 현지 증시 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對)미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대외금융자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396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달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금융자산이 1조1492억달러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 말보다 2042억달러 늘어 증가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1.8%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7.1%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연합(EU)이 3075억달러로

12.6%, 동남아가 2795억달러로 11.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대미 금융자산 증가는 증권투자가 주도했다. 미국 증권투자 잔액은 8028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1786억달러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13.0%, 20.4% 오른 영향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금융자산은 1398억달러로 전년보다 41억달러 줄었다. 주요 지역 가운데 대외금융자산이 감소한 곳은 중국이 유일했다.

지난해 말 대외금융부채는 1조9819억달러로 전년 말보다 5580억달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5231억달러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동남아 3914억달러, EU 3316억달러 순이었다.

대외금융부채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 직접투자 지분 등을 포함하는 국제투자대조표상 개념이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확대도 부채 잔액을 끌어올

렸다.

통화별 대외금융자산은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이 1조5136억달러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유로화 표시 자산은 2231억달러로 9.1%, 위안화 표시 자산은 1153억달러로 4.7%였다.

대외금융부채는 원화 표시 부채가 1조4012억달러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원화 부채는 국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보다 5224억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미 달러화 표시 부채는 4434억달러로 22.4%, 유로화 표시 부채는 421억달러로 2.1%를 차지했다.

/김주형기자 gh471@



# 변압기·ESS·재무안정성 기반 '100년 기업' 향해 질주

12 효성

## HYOSUNG

효성그룹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섬유와 중공업을 양축으로 성장해 온 효성그룹은 지난해 H S효성 출범으로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본격화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 변압기 넘어 SST·ESS까지... 효성 중공업, 미래 전력시장 선점

효성그룹의 최대 성장축으로는 효성 중공업이 꼽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기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효성중공업의 성장세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북미를 중심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와 송배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점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북미 차단기 시장은 2024년 48억달러(약 6조 4000억원)에서 2034년 96억달러(약 12조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달한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에 힘입어 초고압 변압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력기기 수주잔고는 약 20조 1964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현지에서 설계·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투입한 멤피스 공장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북미 매출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오는 2028년까지 멤피스 공장의 생산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효성중공업의 미국 지회사 효성 HICO가 북미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기업 칸타서비스의 자회사인 가스절연차단기(GCB) 전문업체와 합작법인 '효성 HICO 브레이커'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합작법인은 10월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캐논스버그 공장에서 72.5kV부터 800kV급 초고압 차단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효성중공업은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까지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중장기 성장동력으로는 차세대 전력기기인 고체변압기(SST)가 꼽힌다. SST는 기존 변압기에 전력전자 기술을 결합한 장비로 단순한 전압 변환을 넘어 전력 흐름과 품질까지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변압기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2년 22.9kV급 고체 변압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이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 내년 이후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

효성중공업,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초고압 변압기 수주 20조 돌파 '효성 HICO 브레이커' 설립 계약 초고압 차단기 생산 돌입 예정

중장기 성장동력엔 '고체변압기' 호주·日 등서 ESS 기업입지 확대

효성화학, 재무적 아킬레스건 사업정리 등 경영 정상화 총력 효성티앤씨, 스파텍스 호황 전망

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유지보수(O&M)까지 아우르는 'ESS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효성중공업은 전력변환장치(PCS), 배터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설계와 공급, 설치, 유지보수까지 ESS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 사업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글로벌 ESS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09년 ESS 사업에 진출한 이후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50여개 현장에 ESS를 구축했으며, 누적 설치 용량은 2.6GWh를 넘어섰다.

### ◆ '아픈 손가락' 효성화학... 정상화 총력전

효성중공업이 그룹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효성화학의 실적 회복 여부가 향후 효성그룹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 전략의 성패를 기를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화학은 그동안 효성그룹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특히 베트남 생산법인 효성비나케미칼즈의 누적 적자가 재무구조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높은 차입금 부담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에 효성화학은 수익성이 낮은 테레프탈산(TPA) 사업 정리와 인력 구조조정,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베트남 법인 관련 재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효성화학은 효성비나케미칼즈 지분 49%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비나제일처에 매각했다. 아울러 베트남 탈수소(DH) 설비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동률을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효성화학의 정상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주) 효성은 효성화학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데 이어, 베트남 생산법인 효성비나케미칼즈 지분 49%를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약 3835억원 규모의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했다. 핵심 계



미국 전력망에 설치된 효성중공업 초고압차단기 모습.



지난 1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임직원들이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효성중공업



CREORA Aerossilver가 적용된 ASRV 의류 제품.

/효성티앤씨

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무적 지원과 시너지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스파텍스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스파텍스는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기반의 합성섬유로, 뛰어난 신축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레깅스와 수영복,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의류에 활용된다. 효성티앤씨는 자체 브랜드 '크레오라'를 앞세워 지난 2010년 이후 16년 연속 글로벌 스파텍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 글로벌 현장경영 빛난 조현준 리더십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인맥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효성의 해외 수주와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주요 시장을 직접 찾으며 고객사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전력기와 섬유 등 핵심 사업의 해외 비중이 높은 만큼, 조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장 중심 행보가 효성의 해외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케빈 레드 주미 호주대사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대표단과 직접 만나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룹의 수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해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효성중공업과 베트남 전력공사(EVN) 간 전력망 안정화 및 첨단 전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을 이끌기도 했다.

아울러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7년 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를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당시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전이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시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사업을 검토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 회장의 선제적 판단이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 사업 확대와 맞물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 선별과 집중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며 ▲조직 전반에 비용과 효율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세 가지 경영 원칙을 제시했다.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 국힘 “증인 없는게 뉴노멀?”… 다주택·모두의 창업 등 충돌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 전 주택 4채 중 3채는 처분  
한 “다주택 관련부분, 죄송스러워”

여야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맹탕”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총리 청문회에서 증인이 전무했던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 재직할 당시 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이 뇌물 공여 의혹이라고 보고 당시 관련 인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감정인들이 모두 수용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맹목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자료 요청이 가득했다”며 “30년간 한철 내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고등학교 성적은 왜 필요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불법 증축 등 최근까지 제기된 한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 ‘모두의 창업’ 개인 정보 유출사고 등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

당은 한 후보자의 경험·이력을 토대로 총리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몸을 낮췄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게 아니겠나라며 다주택자를 비판한 발언을 겨냥해 “청문회 이틀 남기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다”며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장관 인사청문회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으로 살았던 시절과 공직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모든 다주택 관련된 부분은 계속 매물로 내놓으면서 팔려고 애를 썼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4채 중 3채를 처분하고 현재는 삼정동 소재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도

마에 올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내준 심각한 참사”라며 관련 자료를 오전 중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고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보자 농지 관련 양평군에서 불법적 (건축물 설치) 시정 공문을 보냈음에도 미이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관련된 공문이 발송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후보자는)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까지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군택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한 후보자 지명) IT 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추진력, 전문성, 또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사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李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만들어 낼 것”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韓 지킬 것  
명예롭고 안정된 삶 이어지게 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면서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면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용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0일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들도 있으면 안 된다면서 “76년 전 참호 속에서 피로 맺은 우리의 연대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싸운 연대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 전쟁 기념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5주년 기념행사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10년 단위가 아닌 해의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서예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특검 촉구 거부, 정권침몰 도화선”

국힘 장동혁, 국회 최고위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면서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24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하명 합수본을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이재명·민주당이 모두 한배를 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나온 것에 대해 “특검 수사에는 이렇게 오만하게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잭팟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장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선관위 노동조합에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를 하자는 개혁안을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선거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실무진들의 의견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겠다. 공정한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 李, 내달 1일 文 전 대통령과 靑 오찬

6·3 선거 이후 당권갈등 통합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최근 여론에서 전 국민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는 7월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날 오찬에 불참한다. 이에 김해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만 오찬을 함께 한다.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이 열렸던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조우한 바 있다.

이번 오찬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유류순방 결과나 민생·경제 상황 등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만남은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 행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오찬이후 지지층을 향한 통합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 기자

## “지방에 기회주는 법 개정 서두를 것”

>> 1면 ‘반도체 성장 효과…’서 계속

그러면서 “채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조만간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재계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인 외 호남·충청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논의가 후반부로 와서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2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을 고려 중이라는 질문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고 인정했다.

이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뺄 하나 있는데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력과 용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2044년에 짓기로 한 것을 2034년까지 10년을 당겼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당겨야 한다고 본다”며 “2048년까지 계획돼 있는 삼성도 2034~2035년까지 당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이유는 앞날을 대비해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은 더 이상 부지도 마련하기 어렵고 전력·용수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자산관리의 명가 신한 Premier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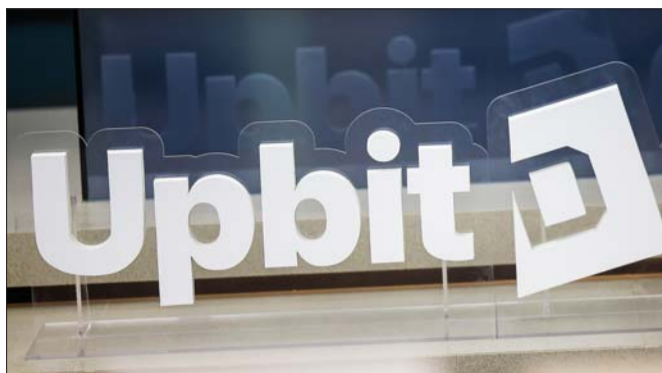
자산관리 전문성과 검증된 리서치 역량으로  
신한 Premier가 자산관리의 품격을 이어갑니다.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신한 Premier 리서치

[ 투자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 ~ 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969호(2026.06.04 ~ 2027.06.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760호 (2026.06.10 ~ 2027.06.09)

# 실적 '뚝' 코인거래소... 금융권과 협업 '미래사업' 밑그림

5개 거래소, 일일거래액 12억 달러 작년 7월 역대 최대치의 30% 수준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연결사업 스테이블코인 유통 인프라 주목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서울 서초구 빗썸라온지 강남본점.

/뉴시스

다각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안이 부재한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 규제당국 간의 방침에도 차이가 있어 사후 규제 가능성도 존재해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이다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하반기를 맞아 재편에 돌입했고, 하반기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입법 우선도는 높지 않다. 업계에서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업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은 외연 확장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물론,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뚜렷한 입법 목표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상자산 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탐색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규제환경에 기존 매출 구조의 지속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져서다. 주요국 거래소들이 증권사·핀테크 등 금융업권과의 협업으로 돌파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입법 공백'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가상자산 업계 매출 '빨간불'

25일 가상자산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일 거래액은 약 12억달러(지난 23일 기준)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후퇴, 금리 전망 변화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9%를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의존

한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순이익은 78%나 급감했고, 2위 빗썸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에 가상자산 업계의 업황도 빠르게 악화됐다.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가상자산 거래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거래소들의 매출 전망은 밝지 않다. 탈중앙화거래소(DeFi)로의 자금 이동, 지수추종펀드(NTF) 등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매출 증가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져서다.

### ◆ 해외선 금융권과 '협업' 활성화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로 가상자산거래

소들이 매출 감소를 겪는 가운데, 규제가 비교적 명확한 해외 주요국 거래소들은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보편화 된 금융권 협업 사례는 '토큰증권(STO)'을 유통하는 '종합거래소'로의 전환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 형태로 나눠 거래하는 기술이다. 주요국 거래소들은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하며, 기존 가상자산과의 연결도 꾀하고 있다.

은행업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유통·예치 등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가치와 연동돼 발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경쟁할 것으로 여겨져서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예치, 결제 시 거래소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거래소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공유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금카분리' 완화 움직임에 주요 은행들이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카드사, PG사, 핀테크 등 금융결제 분야와의 협업도 활발하다. 해외에서는 기존 통화 대비 수수료 부담이 낮고 국가 간 송금 편의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앱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결제 시스템은 별도의 환전 절차가 필요없고, 카드나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도 높다.

### ◆ '입법' 및 '제도화' 과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익

## “이제 카드 안 써요”... 올해 320만명 신용카드 해지

여신금융협, 카드사 8곳 해지회원 전년 동기 대비 22만명, 7.4% 증가  
'해자카드' 단종 등 혜택 축소 영향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개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회원은 줄면서 신용카드 회원 수가 반이 약화되고 있다.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함께 간편결제서비스로 고객이 옮겨가면서다.

2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의 신용카드 개인 해지 회원 수는 총 3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98만3000명)보다 22만명(+7.4%)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을 제외하고 매달 증가했다. 전년 대비 카드를 해지한 회원 수는 1월 10만7000명, 3월 8만2000명, 4월 4만4000명, 5월 9000명씩 늘었다.

신규 회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개인 신규 회원 수는 3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405만1000명) 대비 9만명(-2.2%) 감소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자체가 줄어 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비용 효율화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것이 해자카드 단종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는 이달 25일부터 플래티넘샵(♯) 시리즈 카드를 대거 단종한다. 러브 플래티넘샵, 클럽 플래티넘샵, 레슨 플래티넘샵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한카드 레이디', '신한카드 아름다운', '신한카드 언박싱', '신한카드 The BEST-F', '토스페이 플러스 신한카드' 등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플래티넘샵 시리즈의 경우 대표적인 해자카드 상품으로 꼽힌다. 러브 플래티넘샵 카드만 살펴봐도, 패밀리레스토랑 20~30%, 스타벅스 20%, 뷰티플러스 10%,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할인 등 일상 소비 전방위에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도 지난달 '롯데 스키아파트 플래티넘 체크카드'를 단종했다. 연회비 1만원에 이용금액 1500원 당 1마일리를 적립해 주는 해자카드다. 일부 소비자들은 롯데 스키아파트 플래티넘 체크카드 중단을 두고 체크카드의 마지막 혜택

창구가 사라졌다고 입 모은다.

한 소비자는 "체크카드는 상품권 살 때 한도가 없어 체크카드 한도까지 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면서 마일리지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혜택 희망자가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고객 증가 흐름도 한몫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빅테크3사(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의 온오프라인 합산 결제 금액은 10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100조 돌파다. 지난 2024년 간편결제 금액은 92조9000억원 선이었다. 디지털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업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 회사수와 함께 매출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판게아' 참여

신한은행은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방식을 공동으로 검증하는 프로젝트 '판게아(Pangea)'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유로화 등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프로젝트 '판게아'는 원화 및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유럽 간 자금을 보내고 정산하는 방식을 연구·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과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유럽 은행권 법인 키발리스(Qivalis), 스위트(SWIFT), 체인링크(Chainlink), 페이스퀘러랩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진행된 한국과 일본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과 실증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해 추진된다.

참여기관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해외송금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통화를 거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별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연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운영체제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각각 발행할 수 있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기관들은 프로젝트 설계와 시범 모델 개발을 거쳐 해외송금과 은행 간 자금정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주간 서울 아파트값 0.3%대, 상승폭 확대

동탄 2.22%→1.64% 상승폭 줄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0.3%대로 커졌다. 지난주 2.22% 급등했던 화성 동탄구는 이번주 1.65%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서울에서 0.35%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7%에서 이번주 0.3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5월 셋째주 0.31% 오른 뒤 6월 셋째주까지 0.2%대 상승률을 유지했거나 이번주 다시 0.3%대에 진입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해 상승계약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강북권에서는 도봉구가 창·방학동역 세권 위주로 0.4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종암·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0.41% 상승했다.

강남권은 구로구에서 개봉·구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1%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

주로 0.35% 상승하며 전주(0.3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1%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동탄구는 이번주 1.65% 올랐다. 지난주 2.22%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접 근성이 높은 이른바 '셔세권' 수요와 증신 축 선택이 맞물리며 청계·목동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통했다 스토어 방문객 50% 이상 급증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혜택  
신제품 기다리던 소비자 움직임  
급격한 가격상승 우려도 영향



삼성전자는 내달 5일까지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언팩과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도 삼성스토어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오히려 늘고 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신제품 공개 이후로 구매를 미루던 수요를 일부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기간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7·플립7 등 일부 모델 구매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20% 상당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Hero 대상 고객은 추가 혜택을 더해 최대 30%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감사이벤트 행사 이후 삼성스토어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신제품 공개 직전 구매를 미루는 관망세가 나타난다. 신제품 사양과 가격을 확인한 뒤 기존 모델 가격 인하 여부와 보상판매 조건과

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늘고, 애플이 진입 첫해 약 28%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폴더블 선택지가 넓어지는 만큼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을 모두 지켜본 뒤 구매를 결정하려는 수요도 늘었다.

그럼에도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할인 폭이 영향을 미쳤다. 출고가 148만5000원인 갤럭시 Z 플립7 256GB 모델은 행사 기간 약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아 사실상 1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차기 제품 가격은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가격 인상 전 할인 폭이 큰 지금 기존 모델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스토어 현장 관계자는 “폴더블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삼성 언팩 뿐 아니라 애플 신제품 공개 일정까지 확인한 뒤 교체를 결정하려는 분위기였다”며 “올해는 감사 페스티벌 할인 폭이 커 신제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도 매장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 삼성스토어에서 만난 한 고객은 갤럭시 S 시리즈와 Z 플립7을 두고 “지금 사야 할지 고민된다”며 “애플은 첫 폴더블이라 기대가 되지만 할인 이벤트가 없어 구매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

## 한화솔루션, 3000억 규모 RCPS 발행

유상증자 축소로 인한 재원 보완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발생한 7000억원대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구안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동화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화솔루션은 큐셀 부문 미국 설계·조달·시공(EPC)사업법인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RCPS 발행대금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에 따라 부족해진 재원을 보완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RCPS는 만기 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기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AMPC 추가 유동화도 진

/유혜은 기자

행했다. 회사는 지난해분 AMPC 1억2030만달러(약 1857억원)와 올해분 AMPC 1억 달러(약 1543억원) 등 총 2억2030만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AMPC를 최근 추가 유동화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수령한 AMPC 3억7370만달러(약 5768억원) 전액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회사는 지속적인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3000억원 규모 RCPS 발행을 시작으로 투자자산 유동화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 등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민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LG전자, ‘홈스타일’ 기능 대폭 강화

시공사 입점·전문가 상담 서비스 도입

LG전자가 온라인 리빙 플랫폼 ‘홈스타일’ 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인테리어 시공사 입점과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제품 판매를 넘어 공간 설계와 시공까지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 ‘홈스타일’에 LX하우시스, 한샘, 릴스퀘어 등 인테리어 시공사를 입점시키며 원스톱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고 25일 밝혔다.

홈스타일은 지난해 11월 론칭한 LG전자의 프리미엄 리빙 플랫폼으로, 오픈 당시 국내외 400여 브랜드의 가구, 조명, 패브릭 제품,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2만여 개 제품을 입점시켰다.

이달 개편을 통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시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상담’ ▲전문가들이 공간별 최적의 스타일링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공간 스타일링 상담’ ▲이용자들의 홈스타일링 문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해주는 ‘전문가 Q&A’ ▲전문가의 홈스타일링 가이드를 볼 수 있는 ‘공간 활용 팁’ ▲이용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홈스타일링 노하우를 소개할 수 있는 ‘내 공간 자랑’ 페이지를 신설하며 커뮤니티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LG전자는 공간 스타일링 상담 및 전문가 Q&A 게시판에서 각각 신혼·1인가구·4인가구·시니어·프리미엄홈스타일링 답변 및 상담을 맡을 인테리어 업계 현직자 5인을 선정했다.

이번 커뮤니티 개편을 기념해 LG전자 홈스타일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우리집 취향 태그 챌린지’를 진행한다. 장진혁 LG전자 한국온라인그룹장(전무)은 “지속적인 플랫폼 확대·강화를 통해 고객과 전문가, 나아가 고객과 고객이 인테리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리튬값 조정 국면… 포스코, 수익성 개선 기대

공급 확대에도 수급균형 유지 전망  
포스코그룹, 수직계열화 경쟁력 부각

중국 CATL의 광산 재가동 가능성으로 리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공급 확대만으로 수급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ESS 수요 증가와 가격 하단이 반추지는 가운데 포스코의 5만톤 체제 전환과 가동률 개선, 수직계열화 구조가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탄산리튬 가격은 최근 톤당 15만7000위안까지 하락했다. 지난 23일에는 15만8500위안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5월 20만위안 안팎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하락은 중국 CATL의 장시성 젠사위 광산이 하반기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해당 광산의 연간 공급량은 탄산리튬 환산 기준 4만6000톤 규모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 수준이다. 정부 공고는 재가동 확정인 아닌 토지 승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시장은 공급 확대 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마크인 탄산리튬 가격 하락은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아르헨티나에도 부담 요인이다. 다만 리튬 가격은 지난 2022년 고점 대비 약 90% 하락해 지난해 6월 6만위안대까지 떨어졌던 바 있다. 현재 가격은 당시 저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요도 견조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국내 첫 리튬 정광·수산화리튬 가공 사업을 진행하는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 광양 공장 모습. /포스코

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리튬 수요는 17~30% 증가할 전망이다. ESS용 리튬 수요는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저장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2만5000톤이다. 오는 10월 2공장이 준공되면 총 생산능력은 5만톤으로 늘어난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가동률도 개선되고 있다. 1공장 가동률은 지난 1분기 기준 70%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 판매 물량 비중이 줄면서 평균판매단가(ASP)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다.

포스코그룹이 구축한 공급망도 강점으로 꼽힌다. 포스코는 리튬 자원 확보부터

가공,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직계열화 구조가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일부 분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접리튬추출(DLE) 기술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앤솔리소시스와 미국 유타주 DLE 데모플랜트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DLE는 저농도 염수에서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오는 2027년 데모플랜트를 준공하고 2028년까지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기수 한국폴리텍대 이차전지시스템학과 교수는 “CATL 광산 재가동 물량은 전 세계 공급의 약 3% 수준인 반면 LFP 배터리 수요는 연간 17% 안팎 증가가 예상된다”며 “포스코의 수직계열화 구조는 가격 변동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수요도 견조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

## 삼성 OLED TV, 美 소비자 평가 최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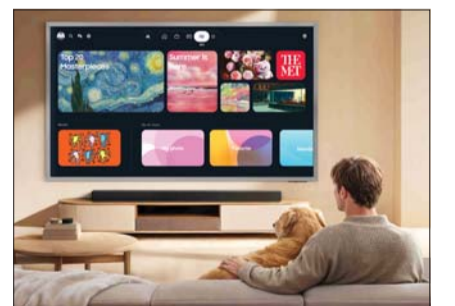
컨슈머리포트 “S95H, 화질 최고”

삼성전자 OLED TV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제품 평가에서 주요 화면 크기별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자사 OLED TV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6월 TV 평가에서 주요 화면 크기별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삼성 OLED 77형(S95H)은 91점을 기록해 70형 이상 제품 중에 1위를 차지했고, OLED 55형(S95H) 또한 90점으로 55~60형 구간 1위를 기록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상세 테스트를 통해 삼성 OLED 77형(S95H)의 화질을 ‘최고(Excellent)’라고 극찬하며, “정교한 디테일로 재현력이 뛰어나며, 최고 수준의 색



삼성전자 OLED TV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정확도를 통해 피부톤 등 모든 색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표현된다”고 분석했다.

또 “가장 어두운 블랙과 가장 밝은 화이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명암비와 딥 블랙 표현력이 어두운 장면에서 엄청난 깊이감과 입체감을 선사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5년형 추진

(최고)

## 중기부,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

허위서류·과장광고 부당개입 규정 최대 5000만원 벌금 부과 법제화 올해 신고 482건 중 8건 수사의뢰 동일 IP 차단·AI 신청체계도 운영 신고자보호·조사권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당개입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금지·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어 위중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1건의 '보험 끼워팔기'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제출 행위를 하도록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조력 제공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개입'이라고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기간 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면책	적극적·중대가담자의 경우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			
포상	포상기준 완화 및 포상 규모 한시적 확대 적용 (예) 신고 소액포상금 40만원 → 60만원			
홍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광고물 신고 캠페인</li> <li>홍보카드 제작·배포</li> <li>우수사례 전파·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사전교육</li> <li>홍보카드 제작 및 배포</li> <li>지역 협업체 협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 뉴스레터 등 홍보</li> <li>유관기관 협업(포스터)</li> <li>인식제고 캠페인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홍보</li> <li>홍보영상 제작 및</li> <li>SNS 영상 송출</li> </ul>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허성무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9일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부당개입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부당개입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 현의자 등에게 출석,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결과 부당개입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울러 부당개입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신청·심사체계도 개편했다. ▲'대리신청' 방지를 위한 동일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여러 기업 신청

탐지 차단 ▲AI 기반의 브로커가 필요 없는 지원 신청체계 운영 ▲정책자금 평가위원 선정시 풀(pool)에서 난수 추출 등 평가위원 운영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상반기에 각 기관에서 운영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482건 중 85.5%인 412건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기관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27건도 포함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김포~제주 슬롯 재배분에도 운항 감소

정부, 운항 준수율 서비스평가 검토 운수권 배분 불이익 등 간접관리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과정에서 재배분된 김포~제주 노선 슬롯 일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국토교통부가 슬롯 미활용만으로 항공사를 직접 제재하거나 슬롯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운수권 평가 반영과 대체 항공사의 무이행 여부 등을 통해 간접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정기편은 323편 감소했지만 슬롯을 넘겨받은 제주항공·트리니티항공·이스타항공·피라타항공의 증편 규모는 186편에 그쳤다. 한국항공공사 통계상 지난 4~5월 전년 동기 대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보다 366편을 추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증편은 180편에 머물렀고, 트리니티항공은 61

편 추가 운항이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60편을 감편했다. 양사에서만 약 2만1000석 규모 공급이 줄어든 셈이다.

소비자 불편과 이동권 침해 논란에도 국토부가 이를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 슬롯은 국제 기준인 '80% 사용 규칙'에 따라 운영돼 80% 이상 사용 시 다음 시즌 우선 배정권을 받는다. 활용률이 낮아도 즉시 회수되지는 않으며, 허위 자료 제출 등 법령 위반이 없는 한 강제 회수 근거도 없다. 유럽공항공회(ACIEUROPE) 등은 슬롯을 운항 의무가 따르는 제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계획 이행률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대비 실제 운항 준수율을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도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혜은 기자

## 최윤범, 호주 총리와 핵심광물 협력 논의

(고려아연 회장)

호주 제련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시너지 기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하고 호주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제련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또 핵심광물 밸류체인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24일 호주 수도 캔버라의 총리 집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핵심광물 밸류체인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최 회장이 고려아연 계열사인 호주 타운스빌 소재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 재임 당시 성과를 거둔하며 "고려아연은 호주 내에서 운영 역량이 검증된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호주 산업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호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며 "고려아연 역시 호주 정부의 자원·에너지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평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이 24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제련소 운영뿐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그린수소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고려아연은 지난 30년 동안 호주에서 제련업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호주 현지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투자해 온 파트너"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고려아연의 기술력 및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는 향후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성운 기자 ysw@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의 VCV 타워 착공식에서 (왼쪽부터) 김기수 LS전선 북미지역본부장, 릭 웨스트(Rick West) 체서피크 시장, 캐리 체너리(Carrie Chenery) 버지니아주 통상상무부 장관, 구분규 LS전선 사장, 아비게일 스펠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 팀 케인(Tim Kaine) 미국 연방 상원의원, 바비 스콧(Bobby Scott) 미국 연방 하원의원, 심윤찬 LS그린링크 매니저 디렉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 LS전선, 美 최대 해저케이블 기지 구축 속도

버지니아 공장 VCV 타워 착공 높이 201m로 세계 최대 규모 내년 하반기 공장 준공 목표

LS전선이 미국 현지 해저케이블 생산 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며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 체계를 앞세워 미국 공급망 자립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그린링크가 최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조성 중인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에서 VCV 타워 착공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LS그린링크 공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생산기지로 조성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과 오는 2028년 1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VCV 타워는 초고압 해저케이블의 절연층을 형성하는 핵심 생산설비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중력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해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VCV 타워는 높이 201m 규모로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VCV 설비이자 버지니아주 최고 높이 구조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대규모 해저케이블 생산 시설은 1곳에 불과해 LS그린링크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최대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의 중

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LS전선은 북미 전력 밸류체인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그린링크와 LS마린솔루션이 초고압 송전망 시장을 담당하고, 가운데전선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을 맡는 구조다.

구분규 LS전선 대표는 "LS그린링크는 북미는 물론 유럽 시장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스펠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기보·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 사업화 맞손

환경R&D 기업에 기술평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녹색기술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시장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지난 2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환경 R&D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전문성과 KEITI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역량을 연계해 환경기술 분야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녹색기술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KEITI는 환경기술 R&D

과제로 개발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환경기술 R&D 수요 기업 발굴 ▲R&D 과제 및 성과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기술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핵심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http://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 통신3사, 차세대 암호기술 확보 속도... 보안공백 메꾼다

KT 'E2E 퀀텀 시큐리티' 공개  
포괄적 양자보안 체계 구축 구상  
SKT, QKD 적용 범위 확대 예정  
장비 크고 비싸... EU서 연구비 지원  
LG U+, PQC로 데이터 보호  
표준화 시기까지 안전성 검증 필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양자기술 기반의 암호 보안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자 보안 기술을 둘러싼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각사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차세대 암호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기반 보안 체계인 공개키 암호가 양자 기술의 등장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양자 기술이 상용화되면 암호 해독 시간이 대폭 단축돼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KT는 최근 'E2E 퀀텀 시큐리티'

를 공개했다. 특정 암호 기술이 아닌 통합적인 보안 전략으로 데이터 전송·운영·저장 네트워크 전 과정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퀀텀 링크·노드·볼트로 나뉜 구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 다중 보안 체계를 만들었다. 여기에 양자내성암호(PQC)나 양자키분배(QKD) 등 다양한 유형의 양자 보안 기술을 수용해 포괄적인 양자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양자키분배(QKD)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QKD는 양자역학 물리 법칙을 활용해 도청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 키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안정성이 높아 국가 기관·군사 등 고 보안 환경에 활용된다. 이에 2018년 스위스 양자암호 기업 IDQ를 인수해 이동통신망 등에 양자 보안을 구축해왔다.

이를 구현하는 통신 특수 장비가 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다국가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에 참가해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받기로 했다.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광직접회로를 결합해 광학 부품을 칩 수준으로 줄여 QKD 장비를 소형화 한다. 향후 생산 단가를 낮추고 전력 소비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인 양자내성암호(PQC)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QKD와 달리 별도로 양자 키를 주고받는 전용 인프라가 없어도 기존 망을 활용해 구축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2024년부터 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국제 암호체계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방식이다.

표준화 시기까지 안전성 검증에 대한 과제가 남은 점은 한계다. 또 새로운 PQC 도입에 앞서 기존 장비·서비스와 호환이 가능한지 상호 테스트를 일일히 거쳐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LG전자와 통신 기술 선행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를 위한 협력을 통해 PQC 등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양자보안은 통신사 보안 역량 강화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자 암호 체계 전환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뤄져 기술 실증과 상용 서비스로 확장하는데 비교적 유리하다는 해석에서다.

다만, 기술 확보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장비·부품·소프트웨어 등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리스크 및 사이버 서비스 리더는 지난 4월 PwC컨설팅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 호황은 대표 메모리 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소부장 기업 기반이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양자보안 역시 국제 표준 대응과 기술 상용화 역량을 갖춘 대표 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된다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 AI 에이전트로 업무 시나리오 설계 시간 단축

LG CNS '퍼펙트윈 ERP 에디션' 선택  
기업 핵심업무, 방대한 사전검증 범위  
영업별 분석 통해 시나리오 자동 생성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IT 위크'에서 '퍼펙트윈 ERP 에디션'을 소개하는 모습. /LG CNS

LG CNS는 에이전틱 AI를 탑재한 퍼펙트윈 ERP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퍼펙트윈 ERP 에디션은 에이전틱 AI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발견된 오류 원인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SAP ERP 시스템 특화 솔루션이다.

회사는 에이전틱 AI의 시나리오 설계 작업 시간을 단축했다. ERP 시스템은 재무, 제조, 구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통합 관리하므로 사전 검증해야 할 업무 범위와 시나리오가 매우 방대하다. 이때문에 각 업무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테스트 항목과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데에만 수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에이전틱 AI가 각 업무 영역별 프로세스와 실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현했다. 업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고객은 ERP 시스템 테스트 기간 줄이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검증할

수 있다.

테스트 수행 과정도 에이전틱 AI로 자동화했다. 테스트 중 이상 징후와 오류 원인을 AI가 자동으로 파악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를 통해 테스트 비전문가도 ERP 시스템을 보다 수월하게 검증하고, ERP 전환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에이전틱 AI는 테스트 수행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도 자동 생성해 테스트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퍼펙트윈 ERP 에디션을 자율형 테스트 솔루션으로 지속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AI 에이전트가 자율 협업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부터 실행, 분석, 오류 수정 및 검증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스스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 LG U+, 아이패드용 IPTV 결합상품 선택

애플 아이패드 A16 모델 사용 가능



LG유플러스 직원이 'U+tv 프리5 for iPad'로 VOD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애플 아이패드용 IPTV 결합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유플러스tv 프리 for 아이패드'는 애플 아이패드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아이패드 OS에 적용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태블릿 상품은 지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으로 선보인 이후 처음이다.

사용 가능한 모델은 애플 아이패드 A16이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동영상 시청 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한다. 색 표현력과 밝기가 뛰어나 실시간 방송과 VOD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고, 장시간 시청할 때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또 지상파방송·VOD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시청뿐만 아니라 학습,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음성 검색 기능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동성과 개인화를 극대화 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간 시청 분리, 추가 TV 설치 부담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유플러스 인터넷 1G 상품과 프리미엄 TV 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유플러스 매장과 고객센터, 기사 방문 또는 택배 개봉 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조민선 기자

## SKT '에이닷엑스 케이원', 제조업 첫 적용

KG스틸·코넥과 현장실증 '맞춤'

SK텔레콤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I)에 나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KG스틸·코넥과 AI 에이전트 현장 실증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KG스틸로부터 확보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특화 AI 에이전트 데모 버전을 개발했다. 데이터는 과거 공정 오류와 사고 분석 보고서, 장비 매뉴얼 및 로그 등이 활용됐다.

회사 측은 SK텔레콤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을 통해 구현했다. 이는 5190억개 매개변수를 갖춘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론 때에는 약 330억개 매개 변수만 활성화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이를 KG스틸의 도금 강관 생산 시설 당진공장 내 냉간 압연 라인과 코넥의 주조·가공 공정에 각각 적용해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을 바탕으로 제조 특화 AI 에이전트 상용화 및 도입을 검토하고,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현재 개발 중인 에이닷엑스 케이원 모델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AI 도입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제조 현장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더디고, 축적한 데이터는 공정별, 부서별로 각각 생성·관리되서다.

작업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업무 처

리 방식이 달라지는 점도 한계다. 특정 숙련공에게만 핵심 노하우가 집중된 지식 고립 현상으로 인해 베테랑의 은퇴나 이직 이후에는 현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 공정별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AI 도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회사 측은 회사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폐쇄형 온프레미스 환경을 지원해 제조 공정 데이터의 외부 반출 없이 기업 내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 지식을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하고 이를 학습한 AI 에이전트를 제조 현장에 도입하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의 강점을 금융, 공공, 의료 등 산업군에서 최대한 활용할 전망이다. 보안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국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네이버, AI 중심 지속가능 성장 전략 공개

통합보고서 발간... ESG 성과도 담아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과 ESG 성과를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 AI를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는 '온서비스 AI(On-Service AI)' 전략과 기술 신뢰성 강화, 생태계 동반성장 방안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25일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통합보고서는 비즈니스 시너지와 임팩트 창출, 기술 신뢰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존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 임팩트'로 확대 개편해 AI 기술 접근성 강화와 사업자·청약자 성장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담았다.

네이버는 올해 AI 기술을 다양한 생태

계 참여자에게 확산하기 위한 '테크 임팩트' 분야에 229억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임팩트 펀드에는 총 1420억원을 투자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AI 브리핑과 ADVoost,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AI 탭과 영·전트N, 쇼핑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 검색부터 구매·예약·결제까지 이어지는 AI 기반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속가능성 전략도 전면 개편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빛나 기자 vitna@

# 증시훈풍에 온 가족이 투자자로... 주식활동계좌 1억개 '훌쩍'

삼성·SK 등 국내주식 상승세 지속  
6개월새 활동계좌 1000만개 '껍충'  
미성년자 계좌 증가세 두드러져

#.전업주부 이래연(55)씨 가족은 모두가 '투자자'다. 이씨와 남편은 2020년쯤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 때 본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채웠다. 기록적인 상승장인 요즘 이씨 가족 단톡방의 주요 대화 주제 역시 주식 투자다. 특히 올해 대학 3학년인 아들(25)이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 이씨는 "아들이 군대에서 받은 월급과 그간의 용돈 등을 모아 주식 투자에 나섰는데, 빅테크와 반도체주 등 요즘 뜨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각자 공부한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11년 차 직장인 은용주(35)씨는 지난달엔 두 살짜리 딸의 주식 계좌까지 만들었다. 삼성전자 주식 5주, 현대차 3주를 사줬다. 은씨는 "20~30년 묵혀두면 아이한테 경제적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8471.02)보다 459.28포인트(5.42%) 오른 8930.30에 마감했다. /뉴시스

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다.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부모 개미'의 대열에까지 합류한 것이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온 국민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전체 활동계좌 수는 1억1000만개에 달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24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약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위탁 매매 계좌와 증권저축 계좌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9828만개였던 활동계좌는 약 6개월 만에 1049만개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증가한 계좌수(1172만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수를 약 5000만

명으로 보면 1인당 2개 이상의 주식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계좌 증가는 올해 이어진 증시 강세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었고, 기존 투자자들도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 계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4월 0~9세 신규 계좌 개설은 119.2% 증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었다. 증시 호황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장기 자산관리와 증여를 병행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직장인 한두나(39)씨는 "장기적으로 투자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 계좌를 만들었다"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주식을 사 모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영향을

미쳤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지원금 지급, 타사 보유 주식 이전 이벤트,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마케팅 등이 신규 계좌 개설을 자극했다. 해외주식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눈을 돌리면서 복귀 수요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IPO 시장도 계좌 증기를 뒷받침했다. 공모주 청약에 위해서는 주관 증권사 계좌가 필요해 신규 계좌 개설이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 규모는 예년만 못했지만, 일부 새내기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오르는 '따따볼'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데다 연금계좌와 자녀 계좌 개설까지 확대되면서 활동계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中 CXMT 상장 임박... 글로벌 메모리 투자지형 흔들나

대표 D램기업... IPO 조달규모 6.5조  
HBM 경쟁력 위협 가능성은 제한적



CXMT 로고

중국 최대 D램(DRAM) 업체인 CXMT가 상하이 과장판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메모리 투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중심으로 형성됐던 메모리 반도체 투자 구도에 중국 대표 D램 기업이 새 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25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CXMT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업공개(IPO) 등록 승인을 받고 이르면 7월 중 과장판에 상장할 전망이다. IPO 조달 규모는 295억위안, 약 6조5000억원으로 SMIC에 이어 과장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조달 자금은 D램 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D램 연구개발, 메모리 양산라인 고도화 등에 투입된다.

CXMT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D램 점유율 7.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다. 지난해 1분기 4.1%였던 점유율은 1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주력 제품도 LPDDR5-5X와 DDR5까지 확대되며 모바일 중심에서 서버용 D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만 CXMT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신승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영역에서 CXMT와 글로벌 3사 간 격차는 최소 3년 이상"이라며 "EUV 장비 부재로

인한 수율 저하가 핵심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변수는 범용 D램이다. 신 연구원은 "CXMT의 양적 확장이 2026~2027년 업황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2028년 이후 다운턴에서는 가격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수 고객 기반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범용 D램 가격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장 이후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도 크다. CXMT는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가이던스로 500억~570억위안을 제시했다. 이를 연율화하고 현지에서 거론되는 202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20~25배를 적용하면 예상 시가총액은 2조 1000억~2조 7000억위안, 약 450조~562조 원 수준이다.

신 연구원은 "CXMT는 중국 A주 시장

의 메모리 익스포저 부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SMIC를 넘어 과장판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투자 수혜는 CXMT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상장 이후 조달 자금이 생산라인 고도화와 공정 전환에 투입되면서 식각·증착·세정 등 전공정 장비와 소재·가스, 후공정 업체로 낙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는 CXMT 개별 종목 직접투자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과장판 또는 중국 반도체 ETF를 통한 간접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신 연구원은 "핵심 이벤트는 발행가와 상장일, 후강통 편입 여부, 과장50 편입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24일 오전(현지 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CCP Global) 정기총회를 마치고 티모시 커디히 CCP Global 집행위원회 위원장(왼쪽 부터 시계방향),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 테오 플로어 CCP Global CEO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 CCP글로벌 집행위원 선출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중앙청산기관 협회(CCP Global)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서 다시 한 번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제 자본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4일(현지 시각)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 정기총회에서 박상욱 청산결제본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 기관들은 한국거래소의 견고한 청산·결제 수행 능력과 인프라 고도화 등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CP Global은 자본시장 내 청산·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 세계 33개국 45개 중앙청산기관(CCP)이 모인 글로벌 협회로, 2001년 1월 설립됐다. 협회의 최고결기구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17개 회원사 대표로 구성돼 협회 운영과 관련된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2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P Global 집행위원회를 통해 CCP 관련 글로벌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리스크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NH-Amundi자산운용 美 AI메모리반도체 ETF 순자산총액 1500억 돌파

NH-Amundi자산운용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ETF'의 순자산총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은 1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는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 대표 4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공정·장비 기업들을 담아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한다.

/허정윤 기자

## 하나증권, 프리미엄 금융센터 'THE H1 W' 오픈

현대백화점 목동점 6층 위치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김창섭 현대백화점 부사장(오른쪽 세번째)이 개점 기념 행사에 참여해 임직원, 주요 손님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현대백화점 목동점 6층에 WM, IB, S&T 등 각 부문 역량을 집결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H1 W를 신규 오픈하고 개점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개점 기념 행사에는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과 김창섭 현대백화점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손님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THE H1 W는 현대백화점 VIP(자스민 손님) 손님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금융센터다.

하나증권은 THE H1 W에서 주식, 채권 등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NEW 패밀리 오피스 인수창업 서비스도 선보인다.

하나증권 THE H1 W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와 VIP채널을 활용한 금융 세미나와 문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 예정이다. 카페라운지 등 손님 대상 프라이빗 공간을 운영하고 현대백화점 앱을 통한 접점을 확대하는 등 일상 속에서 금융 서비스 경험을 늘려갈 예정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THE H1

/허정윤 기자

#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6000개 기업 통관 빨라진다

산업부 ‘韓-中 FTA 공동위원회’ 국내기업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 최신 규정 현행화 화장품 등 무역기술장벽 현안 점검 문화콘텐츠, 서비스·투자 협상 속도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이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 삼아 우리 수출기업 6000여 곳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만연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대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통상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 합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 불일치도 해소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존 ‘HS 2012’에서 최신 ‘HS 2022’ 규정으로 현행화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의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사라져 통관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와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

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열린 별도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북부 최대 물류 거점인 텐진항을 방문해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통한 K-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중국의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中關村)과 텐진 현지 진출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중국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남부발전, 美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953MW 급… 약 5800만달러 투입  
30년간 年 4.7억달러 매출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나일스에 이어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소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북미 민간발전사업(IPP)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폭증으로 미 전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최대 전력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및 워런 지역에 953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총 12억 5800만 달러(약 1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남부발전, 지멘스 에너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 DI)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30년간 매년 4.7억 달러의 안정적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왼쪽 일곱 번째)이 현지시간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볼 가스복합발전사업 현장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준공식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미국 인구의 20%인 약 65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전력시장인 ‘PJM’을 통해 오하이오주 인근 약 100만 가구에 공급된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GM자동차가 합작 설립한 배터리 제조사인 ‘얼티엄셀즈’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핵심 에너지 센터에도 전력이 공급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트럼볼 사업 준공을 통해 기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북미 발전사업 전 주기에 걸친 사업 수행 역량을 재확인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지역의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파트너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트럼볼 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은 북미 시장에서 남부발전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미주 시장에서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귀농·귀어 가구 늘고, 도시 복귀는 줄고

데이터처 ‘지난해 귀농·귀촌 통계’  
귀촌은 감소세… 전년비 0.5% ↓

주춤하던 ‘귀농·귀어’ 가구 수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했다. 귀농인 가운데 5년 이내에 도시로 되돌아간 사람의 비중도 줄었다. 그러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어촌 이주를 가리키는 ‘귀촌’의 사례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올해 귀농·귀어 가구는 8735개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귀농·귀어 가구의 77.8%는 1인 가구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어 가구의 평균 연령은 55.8세로 전년보다 0.2세 많아졌다. 연령대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1%를 차지해 50~60대 비중이 66.4%에 달했다.

귀농인은 9134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156명(67.4%), 다른 직업을 병행하

는 겸업 귀농인은 2978명(32.6%)이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시군은 전남 고흥(153명), 경북 의성(138명), 전남 신안(138명), 경북 상주(125명), 전남 나주(121명) 순이었다.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21.0%), 서울(14.2%), 광주(8.2%)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내 도시로 다시 이주한 귀농인 수는 1969명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귀어가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귀어가구는 586가구로 전년보다 5.6% 증가했고 귀어가구원은 753명으로 5.8% 늘었다. 귀어인은 615명으로 5.1% 늘었다.

반면 귀촌은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농어촌에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 직전에는 농어촌 지역 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지난해 귀촌가구는 31만 6977가구로 전년보다 0.5% 감소했고 귀촌 인구도 41만 3464명으로 2.2%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양진흥공사, 장애인 고용·취약계층 환경개선 지원

굿윌스토어·초록우산에 기부금 전달  
노후주택 가정 찾아 주거환경 개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23일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굿윌스토어 밀알부산방미점을 찾아 기부금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해진공이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기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기부금은 굿윌스토어에 기부되는 물품의 원활한 수거를 비롯해 운송을 위한 담차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부 물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공사는 앞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물품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 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은 상품화 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가운데)이 굿윌스토어 밀알 부산방미점을 찾아, 재판매용으로 전달된 옷들을 살펴보고 있다.

정을 거쳐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재판매될 예정이다.

같은 날 초록우산에는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안인접 지역의 노후 주택은 해양성 기후 등으로 곰팡이, 습기, 해충 등 주거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해진공이 전달한 기부금은 부산에 있는 다수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여름철 방역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된다.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비씨(KOBC) 바다사랑봉사대’는 이날 사업 대상 가구 중 부산 사하구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 해당 가구는 십수 년 전 생계를 위해 선박에 승선했다가 해상에서 실종돼, 사망 처리된 가구의 유가족이다.

해진공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 해양지원기관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해양인과 그 가족의 삶을 돌보는 것 또한 사회적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번 지원에 나섰다. 바다 사랑봉사대는 도매지 교체와 외벽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제 유가·가스 일제히 하락… 진정 국면

호르무즈 통항 따른 원유 공급 기대  
전일비 브렌트유 0.8%, WTI 0.6% ↓

중동전쟁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가 25일 발표한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은 중동발 공급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전일 대비 하락했다. 로이터도 이날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원유·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5일 08시 기준 국제 유가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Brent)유는 배럴당 73.14달러로 전일 대비 0.8% 하락했으며,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전일 대비 0.6% 내린

69.92달러를 기록하며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두바이(Dubai)유 또한 24일 장미감 기준 전일 대비 무려 6.2% 급락한 67.29달러로 집계됐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는 각각 전쟁 이전(2월 27일) 대비 0.9%, 4.3% 높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스 가격도 하락 흐름이다. 아시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지표인 JKM 가격은 전일 대비 1.2% 하락한 백만Btu당 15.52달러, 유럽의 TTF 가스 가격은 1.9% 떨어질 13.77달러로 마감했다. 다만 미국의 헨리허브(HH) 가스 가격은 2.9% 소폭 상승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소폭 하락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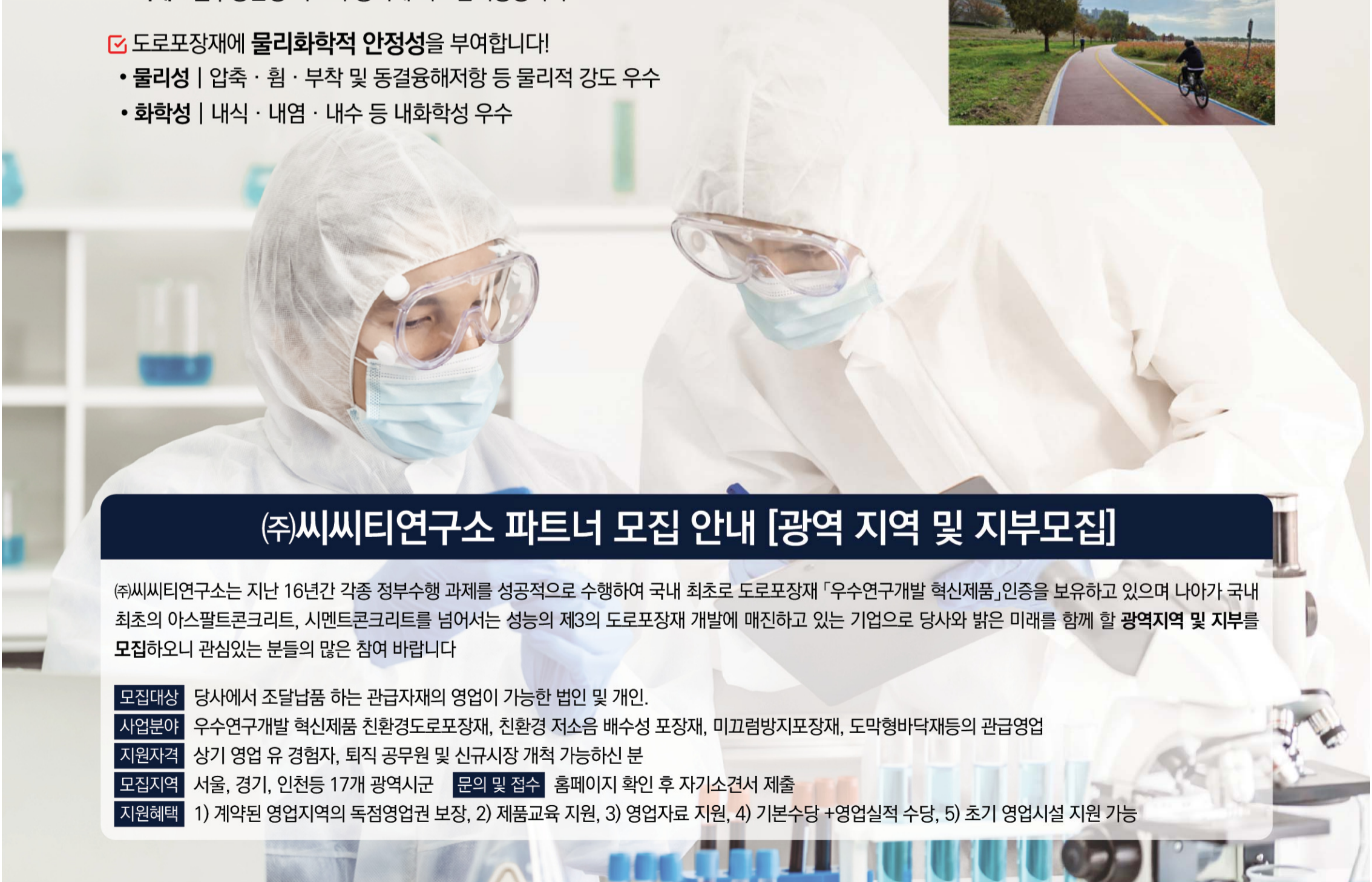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기술의 수준이며,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친환경포장재



## ■ 친환경 CNK 도로포장재의 4대 우수성

- ☑ 도로포장재에 혁신적인 **친환경성**을 도입합니다!
  - **친환경재료** | 6대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불용출
  - **친환경 공법** | 소형장비 · 현장생산 · 간단시공을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
- ☑ 도로포장재에 적합한 **고강도재료**를 적용합니다!
  - **골재(FNS) 특성** |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고강도
  - **하이브리드 바인더** | 아크릴과 우레탄의 하이브리드 유기결합제로 두 장점을 모두 보유
- ☑ 도로포장재에 복합적인 **기능성**을 접목합니다!
  - **공극률** | 배수성 및 소음저감 성능 우수
  - **미세요철** | 평탄성 확보와 동시에 미끄럼저항성 우수
- ☑ 도로포장재에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 **물리성** | 압축 · 휨 · 부착 및 동결융해저항 등 물리적 강도 우수
  - **화학적** | 내식 · 내염 · 내수 등 내화학적성 우수



## (주)씨씨티연구소 파트너 모집 안내 [광역 지역 및 지부모집]

(주)씨씨티연구소는 지난 16년간 각종 정부수행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도로포장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최초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를 넘어서는 성능의 제3의 도로포장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당사와 밝은 미래를 함께 할 **광역지역 및 지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당사에서 조달납품 하는 관급자재의 영업이 가능한 법인 및 개인.
- 사업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친환경도로포장재, 친환경 저소음 배수성 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등의 관급영업
- 지원자격** 상기 영업 유 경험자, 퇴직 공무원 및 신규시장 개척 가능하신 분
- 모집지역** 서울, 경기, 인천등 17개 광역시군 **문의 및 접수** 홈페이지 확인 후 자기소개서 제출
- 지원혜택** 1) 계약된 영업지역의 독점영업권 보장, 2) 제품교육 지원, 3) 영업자료 지원, 4) 기본수당 +영업실적 수당, 5) 초기 영업시설 지원 가능



**(주)씨씨티연구소**

Chemical Concrete Technical Research Center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17

대표번호 054-535-2704

홈페이지 www.cct.or.kr

E-mail cct5352704@hanmail.net

# 내년 중등교사 채용 최대 5100명... 2030년엔 30% 감소

교육부, 내년 4700~5100명 채용  
기존 계획보다 1100명가량 확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수요 반영  
소규모학교·신도시 지역여건 고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2027학년도 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2027학년도 4700~5100명에서 2030학년도 3300~3700명으로 줄어들어,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양성 등 주요 정책 수요를 함께 반영

한 것이 특징이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 21%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29만9000명에서 2030년 160만1000명으로 3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1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연도별·학교급별 변동 추이를 반영해 교원 수급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초등 신규채용 교사 수는 2027학년도 2700~2900명 인략에서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학년도와 2030학년도에는 각각 2500~280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 신규채용 교사 수는 2027학년도 4700~5100명 인략에서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기준 중장기 수급계획에서 2027년 중등 신규채용 규모가 3500~4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기준으로는 기존 계

획보다 1100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유입 지역의 교육여건도 수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학교에는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학급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를 뒷받침한다.

주요 교육정책 수요도 교원 배치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AI·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2026년 1000교에서 2027년 1500교, 2028년 2000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해 운영하

는 학교다.

다만 실제 연도별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경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일률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한쪽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원 협의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별 학급 여건, 선택과목 운영, 기초학력 지원 같은 실제 배치 수요를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서울, 이공계 인재 주택 공급... 최장10년 거주

마포 성산동에 17호 첫 공급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대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보증금 3000만~7000만원 차등



마포구 성산동 이공계 인재 성장 주택 내부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이공계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을 처음 공급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성산동에 성장주택 17호를 공급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이공계 전성시대' 정책의 핵심 전략인 '3NO(학비·성과·주거비 부담 NO) 1YES(이공계 자금심 YES)'의 후속 사업이다.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39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성산동 성장주택은 연세대·서강대·홍익대 등 주요 대학과 대중교통으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용면적 28~39㎡

규모의 17가구로 구성됐으며,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냉방기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도 기본 제공된다.

보증금은 3000만~70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72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책정됐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성산동 공급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60호), 동대문구 이문동(23호)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장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입주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공계 인재들이 주거 걱정 없이 연구와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 수원시, AI·스마트도시 7개 사업 선정

국비 등 외부재원 674억 확보  
사업비 80% 조달해 시비부담 최소화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주요 AI·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84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AI 선도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AI·스마트도시 분야 공모사업 7건에 선정돼 총 8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613억 원, 도비 1억 원, 기타 외부재원 60억 원 등 총 674억 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은 172억 원으로 최소화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80%를 외부 재원으로 조달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재 양성부터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 안전 서비스까지 AI 생태계 조성 전반을 아우른다.

먼저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 등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2026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을 통해 광고호수공원 등 8개 거점에 배송 인프라가 구축되며, AI 기반 지능형 포트를 탑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고려대, 세계대학 영향력 12위... 1년 새 59계단 상승

1603개 대학 중 역대 최고 순위  
일자리·경제성장 부문 세계 1위  
책임 있는 소비·생산 부문 3위



고려대학교가 2026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1년 만에 59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2026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기준으로 전 세계 대학의 교육·연구·사회 기여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는 1603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했다.

장'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부문에서는 세계 3위,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문 세계 19위를 기록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대학 구성원의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인공지능(AI)과 인간 지능(HI)을 융합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 상상플랫폼, 글로벌 MICE 행사 잇단 유치

인천시·관광공사, 중국 기업회의 유치  
11월 내외국인 1500명 인천 방문

인천의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이 대규모 국제 MICE 행사와 글로벌 기업회의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보건·의료케어 기업이 주최하는 글로벌 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부터 펼친 맞춤형 찾아가는 세일즈와 5월 현장 실사를 통해 6월 2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기업 회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상플랫폼에서 약 1,500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체 기업 회의를 비롯해 하버파크호텔 숙박, 개항장 및 송도 투어 등이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0일에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행사인 '직접판매세계대회 웰컴디너' 행사 역시 상상플랫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MICE 전문가들의 인목이 집중되면서, 상상플랫폼의 글로벌 MICE 명소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곡물창고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역사적 가치와 감각적인 트렌드를 동시에 담아 이색적 경험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니즈에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 기업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상상플랫폼을 인천 MICE 산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승영 기자 sy1321@

# 농심, 러시아 거점 확보... 글로벌 중심 질적성장 속도낸다

유라시아 지역 등 신시장 진출 국내 인프라 기반 수출 수요 대응 해외매출 비중 60% 이상 목표

농심이 유라시아와 중남미 등 글로벌 신시장을 타깃으로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나섰다. 내수 시장의 성장 정체를 해외 판로 개척으로 돌파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인프라를 수출 전용 기지로 탈바꿈하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농심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 판매법인 '농심 러시아(Nongshim Rus LLC)'의 설립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봄 네덜란드 유럽법인을 출범시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단행된 신규 해외 거점 마련이다.

농심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러시아 서부 권역을 우선 공략한 뒤, 현지 유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부와 극동 지역으로 지배력을 넓힐 계획이다. 'X5'와 '마그니트' 등 현지 대형 오프라인 유통 체인은 물론, '오존'·'와일드베리즈' 같은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에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현지 라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농심 신라면 제품 이미지 (오리지널, 로제, 골드, 툼바)

지역으로 시장을 넓혀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 법인에서만 매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법인 실적은 올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된다.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중남미 멕시코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체험형 마케팅을 펼쳤다. 농심은 멕시코 시티의 대형 축제인 '캄포 마르테 26'에 대규모 홍보 부스를 열고 즉석 조리기를 통한 신라면 시식회 등을 전개했다. 매운맛 선호도가 높은 현지 식문화를 정조준해 멕시코를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글로벌 수요 폭증은 국내 생산공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라면 시장의 가격 인상 압박과 소비 둔화를 해외 판매법인 공급 물량 확대로 상쇄하며 외형과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농심의 올해 1분기 한국 부문 매출은 6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480억 원으로 26.7% 급증했다. 내수 직접 매출 감소에도 이익률이 개선된 핵심 요인은 '내부 거래'의 증가다. 1분기 한국 부문의 해외 법인향 내부거래 매출은 97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6% 폭증했다. 국내 공장이 단순 내수용을 넘어 글로벌 공급 중심축으로 변모하며 전체 수익성을 방어한 셈이다.



농심이 지난 11일 운영한 멕시코 캄포 마르테 페스티벌 신라면 홍보 부스 현장. /농심

금융투자업계 역시 농심의 이 같은 체질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230억 원, 4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21.4%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농심의 수출 중심 사업 구조는 올해 하반기 완공되는 인프라를 통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농심은 오는 4분기 가동을 목표로 부산 녹산 제2공장(수출전용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과 중국 등 자체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유럽과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향하는 물량은 전량 국내에서 제조

해 수출한다는 것이 농심의 글로벌 전략이다. 녹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해외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된다. 농심은 이곳에서 신라면을 비롯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라면 툼바,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트렌디한 신제품과 너구리, 김치라면 등 현지 인기 품목을 집중 생산해 전 세계 시장에 신속히 도달할 계획이다.

최종 지향점은 창립 60주년을 기해 선포한 '비전 2030'의 실현이다. 농심은 오는 2030년까지 연 매출 7조3000억 원, 영업이익 7000억 원을 달성하는 동시에 현재 40% 선인 해외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전격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식음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농심 관계자는 "러시아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주변국 시장 공략을 도모하는 동시에, 하반기 완공될 국내 수출 전용공장의 제조 역량을 발판 삼아 글로벌 공급망을 한층 더 촘촘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백화점, 여름세일 돌입... 쿠폰 등 혜택 '풍성'

신세계 36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롯데 '빈폴X헌터' 한정판 레인부츠 판매 현대 하츠투하츠·에이티즈 팝업 운영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여름 정기 세일에 돌입하며 할절기 쇼핑 수요 선점에 나선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 백화점 3사가 내달 12일까지 여름 정기 세일을 개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정기세일 'only SHIN SEGAE SALE'을 개최하고 여성·남성패션과 스포츠, 리빙, 잡화 등 전 장르에 걸쳐 약 3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세일은 모바일 앱과의 연동을 강화해 소비자가 카테고리별 인기 브랜드를 한눈에 보고 가나다순으로 전체 참여 브랜드를 검색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했다.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전통 문화 감성으로 재해석한 디즈니 캐릭터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오프라인 집객 콘텐츠도 강화했으며, 신백리워드 가입 고객 및 제휴카드 결제 고객에게 금별별 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9층 매장서 고객이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쇼핑

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채로운 구매 혜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또한 패션, 스포츠, 리빙 등 전 상품군에서 총 400여 개 브랜드의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이는 '2026 여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럭셔리 브랜드부터 인기 K-패션까지 참여 폭을 넓혔으며, 장마철을 겨냥해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빈폴X헌터' 팝업을 열어 한정판 레인부츠를 선보이고 본점에서는 크룩스 워터 슈즈를 할인 판매한다.

특히 부산권역 7개 점포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려 '롯데디자인츠'와 협업한 '올스타 쇼핑 위크'를 열고, 추첨을 통해 500석 규모의 사직구장 매치데이 관람권을 증정하거나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로 시구·시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색적인 야구 콘텐츠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압구정본점을 비롯한 전국 백화점에서 여름맞이 할인 행사 '더 세일'을 열고 패션·잡화·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의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더해 점포별 특화 행사로 무역센터점의 'S/S 플리즈 대전', 신촌점의 '서머리빙 리프레쉬', 미아점의 '여름 레포트 대전'을 각각 전개한다. 아울러 물강스족을 위해 더현대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 팝업과 전시를 배치했다. 지하 1층과 5층에서는 걸그룹 '하츠투하츠'와 보이그룹 '에이티즈'의 신보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를 유통사 최초로 운영하며, 6층 복합전시공간 알트윈에서는 악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벵크시의 공식 인증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도 연다. /김서현 기자 seoh@

## 롯데웰푸드 "설레임, 손시림 고민마세요"

패키지 리뉴얼... 신제품 2종 출시

파우치형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 '설레임'이 미세발포 기술을 적용한 패키지로 손시림 현상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빙과 성수기 공략에 나선다.

롯데웰푸드는 출시 24주년을 맞은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레임'에 신기술을 적용한 패키지를 도입하고,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설레임을 장시간 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시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패키지 내포와 외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그 안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손에 닿는 직접적인 냉기를 차단했다. 해당 패키지는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단일 성능평가에서 기존 패키지 대비 실제로 손시림이 48% 완화된 것을 확인받았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를 앞두고 설레임 콜리쉬 신제품 2종도 출시한다. 기존



손시림 완화 패키지가 적용된 설레임 제품 패키지. /롯데웰푸드

설레임 제품들은 밀도가 높고 쫄쫄한 질감이려면, 설레임 콜리쉬는 아이스크림에 미세 얼음이 더해져 먹는 동시에 시원함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신제품 '설레임 콜리쉬 벨지안 초콜릿'은 진한 벨지안 초콜릿 맛으로 미세 얼음이 더해져 뒷맛이 깔끔한 제품이다. '설레임 콜리쉬 멜론소다'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멜론의 맛에 상쾌한 소다를 더해 높은 청량감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롯데백화점, '더콘란샵' 신규 매장 오픈

프리미엄 홈퍼니싱 공간 구성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The Conran Shop)'이 오는 26일 인천점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더콘란샵 인천점은 강남점, 동탄점, 본점, 잠실점에 이은 국내 5번째 매장이자 인천 및 수도권 서부 지역에 처음 선보이는 매장이다.

인천점 매장은 글로벌 디자인 가구 브랜드를 집약한 프리미엄 홈퍼니싱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를 비롯해 놀(Knoll), 칼한센

앤선(Carl Hansen & Søn), 허먼밀러(Herman Miller), 비트라(Vitra) 등 주요 디자인 가구 브랜드를 선보인다. 모듈 가구 브랜드 USM과 디자인 조명, 홈 액세서리, 더콘란샵 자체 브랜드(PB) 컬렉션도 함께 판매한다.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디자인 조명과 체어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며, USM 상품을 500만원 이상 구매할 고객에게는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프트 큐레이션 상품 할인 행사와 구매 금액대별 롯데상품권 증정, 스페셜 기프트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 CJ프레시웨이, 외식프랜차이즈 맞춤형 상품 확대

"고객사 메뉴 경쟁력 강화 기여할 것"

CJ프레시웨이가 연구개발(R&D)역량을 바탕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맞춤형 상품 개발을 강화한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23년 6월 R&D센터 출범 이후 약 3년간 800여 종의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관련 매출은 연평균 3.5배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 R&D센터는 상품 개발과 메뉴 기획, 제조 연구개발 인력을 통합

한 조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맞춤형 상품과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브랜드 고유의 레시피를 간편 조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고, 신규 메뉴 콘셉트에 맞는 맛과 조리법 설계도 지원한다.

외식 부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사가 보유한 레시피와 맛의 특성을 제품에 반영해 조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국 매장에서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 개발 사례로는 스탠다떡볶이의

떡볶이 소스와 샐러리아의 마녀스프 등이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브랜드 고유 맛을 상품으로 구현하는 것이 R&D센터의 핵심 역량"이라며 "점포의 메뉴 품질 표준화와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확대해 고객사의 운영 효율성과 메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안티푸라민부터 렉라자까지... 100년 여정 딛고 혁신 창출

## 프로

### 유한양행 '윌로우 하우스'

옛 사옥,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선물 유래 압도적인 푸른 빛 '버드나무' 로고 소유·경영 분리... 선진 지배구조 유일한 박사 '사회 환원' 대의 박제 우수한 생산 기반 글로벌 영토 확장

유한양행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창업주 유일한 박사가 왜 존경받는지 그리고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현장에 남아있다. 유한양행은 100년은 뿌리 위에서 꽃을 피운 '청년 기업'이다.

지난 24일 방문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윌로우 하우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유한양행을 상징하는 거대한 푸른 빛의 버드나무 로고가 관람객을 압도한다.

버드나무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에게 '나라와 민족의 유용한 재목이 되라'며 선물한 목각판에서 유래했다. 기업명 자체도 서사가 깊다. 멀리 타국에서도 한국인임을 잊



윌로우 하우스 1층 전경.

지 않기 위해 유일한 박사의 성 버들 유(柳)에 한국 한(韓)을 합치고, 특정 업종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의 양행(洋行)을 붙였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시작한 100년의 여정은 한국 제약 산업이 걸어온 거목의 길이기도 하다.

전시관 중심 벽면을 가득 채운 황금빛 글귀들은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유한양행이 지킨 정체성을 전달한다. '기업의 제1 목표는 이윤의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기업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윌로우 하우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각종 유한양행 개발 의약품이 전시되어 있다. /유한양행

것이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등 유일한 박사가 남긴 명언들은 오늘날 유한양행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감본이다.

이 기업이 정신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선진 지배구조로 실현됐다. 유한양행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갖췄다. 창업주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이 대주주이며 평의원 출신의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된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주주 배당을 통해 다시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으로 환원되어 교육 등 사회 부문에서 쓰인다.

창업주 일가의 세습이나 경영권 분쟁 없이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은 유일한 박사의 유언이기도 하다. 친필 유언장

은 빛바랜 종이로 보관됐고 '소유 주식을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교육 및 사회공헌에 써달라'는 대의는 박제됐다.

특히 창업주가 목숨과도 같았던 자산을 전량 투입해 일궈낸 것은 국산 의약품이다.

그 첫 걸음에는 국민 상비약 '안티푸라민'이 있다. 1933년 출시한 유한양행 최초의 자체 의약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초록색 캔에는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겠다'는 신념이 담겼다.

과거 안티푸라민이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현재는 폐암 신약 '렉라자'가 세계를 이끈다. 렉라지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제31호 국산 신약이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도약하는 치료제다.

또 렉라지를 비롯해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글로벌 오

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는 물론, 인벤티지랩 등 유수의 국내 바이오벤처들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지도 위에 치밀한 글로벌 4대 전략을 선명하게 그려놓았다. 미국·유럽·일본을 혁신신약 수출과 글로벌 상업화의 거점으로 정조준한다.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에는 해외 공동연구 기지를 세웠고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에서는 원료의약품 사업을 활발히 한다.

이 웅대한 발걸음을 뛰게 하는 든든한 심장은 오창 공장과 오송 공장이다. 글로벌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충족하는 생산 시설과 역량이 뒷받침된다.

이날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혁신하여 더 좋은 약을 만들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바른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윌로우 하우스는 1962년 준공 후 60년 동안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공간이다. 1996년까지 35년간 본사였고 1997년에는 신사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지아이이노베이션, 'BIO USA' 기업발표

GI-101A, GI-102 임상개발 성과 PAH 치료제 후보물질 GI-214 공개 글로벌 협력 위한 사업개발 미팅도

(췌지아이이노베이션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BIO USA)의 공식 프로그램인 '기업 발표' 세션에 선정돼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MSD,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등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 협력을 진행 중인 GI-101A와 GI-102의 임상개발 성과 소개 및 차세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후보물질 GI-214를 중점적으로 공개했다.

GI-214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면역항암 분야를 넘어 심혈관·희귀질환 영역으



(췌지아이이노베이션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BIO USA)의 공식 프로그램인 '기업 발표' 세션에 선정돼 발표를 진행했다.

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폐동맥고혈압은 폐혈관이 비정상적으

로 좁아져 폐동맥 압력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다. 현재 글로벌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약 8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3년에는 130억 달러(약 18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이번 BIO USA에서 공식 '기업 발표'와 더불어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1A, GI-102, GI-108 및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GI-214를 중심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사업개발(BD)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전임상 파이프라인인 GI-214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신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애경산업 '케라시스', 신형 뷰티시장 공략

우즈벡·카자흐스탄 등서 K팝 행사 독립국가연합 지역서 브랜드 확산

애경산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신형 뷰티 시장에서 K뷰티 대표 '헤어 브랜드' 입지 선전에 나섰다.

애경산업의 고급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K뷰티에 K팝을 더한 행사를 선보이는 등 브랜드 확산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케라시스는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매직 시티에서 '케라시스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를 열었다. K팝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대회로 약 1000명의 K컬처 팬들이 모여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케라시스는 앞서 이달 6~7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메가 알마 아타에서 개

최된 'K팝 스타 카자흐스탄'을 공식 협찬했다. 해당 축제에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약 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관련 게시물들이 11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케라시스는 이처럼 현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케라시스는 지난 2020~2025년 CIS 지역에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 18.4%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매출 성장률은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7% 수준이다.

애경산업 데일리케어사업부 안정태 상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케라시스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팜젠사이언스, 차세대 MRI 조영제 개발 박차

K-MEDI hub 전임상센터와 '맞손'

팜젠사이언스가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임상 진입 및 사업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팜젠사이언스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전임상센터와 '전임상 연구 및 신약개발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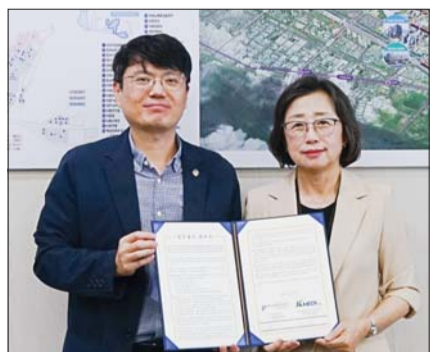
양 기관은 신약개발 역량과 전임상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연구개발(R&D)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

동 연구 및 기술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연구인력 간 교류, 첨단 연구시설 및 연구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K-MEDI hub 전임상센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다양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전임상 연구 전문 기관이다.

특히 팜젠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MRI 조영제의 비임상 평가와 관련해 K-MEDI hub 전임상센터의 전문 연구 인프를 활용하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당사가 추진 중인 차세대 MRI 조영제 개



팜젠사이언스가 K-MEDI hub와 차세대 MRI 조영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의 비임상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MEDI hub 전임상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HLB생명과학, 'MDSAP' 인증 획득

주요 주사기 제품군 대상

HLB생명과학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HLB생명과학은 국제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MDSAP은 제조시설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검증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 등 5개 국가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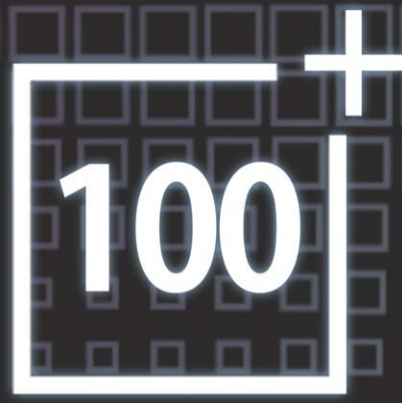
이번 심사는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주사침,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 세척용 주사기 등 주요 주사기 제품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제품의 설계·개발, 제조, 판

매 전 과정이 인증 범위에 포함됐다.

인증 획득에 따라 HLB생명과학은 그간 국가별로 진행하던 중복 심사 부담이 줄어들어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어 및 해외 파트너사와 신규 계약 과정에서 품질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 협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백운기 HLB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MDSAP 인증은 회사의 주사기 품질경영체계가 글로벌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흥명보호, 남아공에 0-1 패... 32강 자력 진출 무산

1승2패·승점 3, A조 3위로 하락  
손흥민 후반 투입에도 끝내 무득점  
다른 조 3위 성적 따라 32강 결정

‘캡틴’ 손흥민(LAFC)을 후반 조커로 활용한 흥명보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일격을 당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했다.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 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0-1로 졌다.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한 뒤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석패했던 한국은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에 패하며 1승 2패(승점 3)를 기록했다.

이로써 조 1위로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던 개최국 멕시코가 3전 전승(승점 6)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가운데 남아공이 2위(1승 1무 1패·승점 4)로 올라서고, 한국이 3위로 내려갔다.

체코는 조 4위(1무 2패·승점 1)로 탈락했다. 같은 시간 멕시코는 체코를 3-0으로 완파하고 32강 진출을 자축했다.

48개 팀으로 참가국이 늘어난 북중미 월드컵은 각 조 1~2위 24개 팀과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합류해 32강 토너먼트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 0-1로 패한 대한민국 손흥민이 아쉬워 하고 있다. /뉴시스

트로 우승 팀을 가린다.

A조에선 멕시코와 남아공이 32강 자력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32강 직행 티켓은 놓쳤지만, 다른 조 3위 팀들의 성적에 따라 32강 진출을 엿볼 수 있다. 다만 한국보다 승점이 많거나 골 득실에서 앞서는 8팀이 나오면 탈락이다. 대회 조별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28일에 마무리된다.

한국은 남아공을 상대로도 3-4-2-1 ‘스리백 전술’을 가동했다. 경기 전 선발 2~3자리 변화를 예고했던 흥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로 내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체코, 멕시코전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된 건

이번 대회 들어 처음이다.

손흥민이 빠진 원톱은 체코전 역전골 주인공인 오현규(부식타시)가 맡았다. 공격 2선은 이강인(파리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튼)이 섰다.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교체로 뛰었던 황희찬이 선발로 뛰는 건 처음이다.

중원에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비명업)가 경기를 조율했다.

스리백 수비는 김민재(뮌헨)를 중심으로 이한범(미트윌란), 이기혁(강원)이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 설영우(츠베즈다), 이태석(빈)이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3경기 연속 김승규(FC도쿄)가 썼다.



## 롯데웰푸드, 육군 17사단에 위문품 전달

롯데웰푸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장병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 지원에 나섰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3일 ‘사 1 병영’ 결연 부대인 육군 제17보병사단을 방문해 2억 원 상당의 위문품 2585박스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 인하대·머크, 바이오의약 인재 양성 맞손

인하대학교는 지난 24일 송도 머크 M Lab(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 머크(Merck) 라이프사이언스와 바이오의약품 분야 우수 인재 양성·교육을 위한 산학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용수 인하대 첨단바이오의약학과 학과장과 김영덕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하대학교

## 에티오피아에 참전용사 추모시설 건립

### HD현대 국가보훈부와 협약

정기선 회장, 국내외 보훈 활동 확대  
HD건설기계, 공사 장비 지원 나서

HD현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보훈 활동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엔 참전국 기념시설 건립까지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HD현대에 따르면 정기선 회장은 지난 5월 임직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묘역을 정비하고 태극기와 조화를 봉헌했다. 이를 통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HD건설기계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회사는 유엔 참전국 내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기념시설은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 5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HD현대

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조성된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유와 평화 수호의 사명을 다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책임감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상의 밑거름이 됐다”며 “그들의 용기와 우정을 기억하며 에티오피아의 발전과 번영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중기중앙회, 강원서 첫 ‘러블리 콘서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900명 참석  
오케스트라·성악 등 다채로운 무대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Lovely Concert’를 열고 지역에 문화생활을 전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지난 24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Lovely Concert’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Lovely Concert는 치열한 생업에 치여 비싼 일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내 최정상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6회로 계획된 권역별 콘서트 중 네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9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김승호 기자 bada@



## 여경협, 여성기업 법률지원 강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법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원과 손을 잡았다. 여경협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본회 사옥에서 법무법인 원과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및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회원사 대상 법률 상담 및 자문 등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맞춤 지원 확대

이노비즈협회가 회원사의 경영 지원과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4일 경기 판교 협회 사무실에서 ‘2026년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과 신규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

## 하나금융, 광주서 중장년 채용박람회

지역 강소기업 65개사 참여  
현장 면접·맞춤형 채용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3일 ‘2026 하나 JOB매칭 페스타 in 광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 JOB매칭 페스타’는 전국 주요 도시의 중장년 구직자와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기초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인난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는 맞춤형 경력 인재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포용금융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올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하나 JOB매칭 페스타’는 광주빛고을50+센터, 광주지방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중앙 라운지에서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고용노동청, 광주경제진흥원생생일자리재단,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역 내 8개 주요 협력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 지역 내 중장년 친화적 강소기업 총 65개사(현장 면접 15개사, 채용게시대 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인사 ◆화재보험협회 △서울인천지역본부장 홍철의 △경기강원지역본부장 이철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안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임용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충원

## 부음 ▲이정훈씨 별세=이석윤(전 포항시의원)·이석준(센트럴모터스-렉서스분당 영업이사)씨 부친상=24일, 교원예음포항국회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30분, 장지 경주하늘마루. 010-2670-5588.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2 | 해질 19:57

6월

# 26일 (금)

음력 : 5월 12일

수도권 날씨

## 18 ~ 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6/29  
동두천 16/28  
가평 16/27  
파주 16/28  
서울 18/30  
양평 18/29  
인천 18/29  
수원 18/29  
용인 18/29  
평택 18/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킷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비바닥한 천재

#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두의 창업, 모두의 정보



**김승호의  
시선**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브리핑에 앞서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허리를 굽혔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입구. 중기부 장관을 맡으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을 만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중기부 장·차관이 최근 정보 유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으로 인해 같은 날 모두 국민과 창업자들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이를 실행한 창업진흥원은 안일하고 세심하지 못했다. 여튼으로부터 못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가짜나 국민들이 거대 유통 플랫폼

폼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공분하고 이런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사기업도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라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위중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서비스의 신뢰와도 직결된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 아이디어 유출이나도 용이었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걱정했던 일은 본계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벌어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 과정에서 총 9개의 IP(인터넷 프로토콜)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본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석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를 ‘해킹’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해킹은 외부의 소행이 아닌 모두의 창업 프로

젝트에 참여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업체가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기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조사 중인 과정이어서 해킹의 주범을 적시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선 중기부는 1차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대해 ‘영역비밀 원본증명’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 1년간 무상 기술임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모든 부처 중에서 정책 대상과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 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대한민국 기업수의 99%를 관장한다. 정책의 가짓수가 그만큼 많고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 많은 기업의 영업 비밀, 기술 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 장관을 거쳐 총리로 지명, 25~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한 장관의 대표적인 지적 중 하나다.

모두의 창업이라고 명명했지만 참가자들의 정보가 ‘모두의 것’일 수는 없다. 더욱 큰 일을 하러가는 한 총리 후보자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 안보’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 K게임은 왜 게임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나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하반기 게임업계는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TGS), 부산 지스타까지 세계 3대 게임쇼가 이어지는 시즌이다. 신작 공개와 기술 경쟁, 글로벌 시장 전력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무대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다르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스타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임에도 아직 메인 스폰서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가 메인 스폰서를 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국내 게임축제의 얼굴을 해외 기업이 맡는 상황 자체가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해외 게임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임쇼

컴 참가를 공식화한 국내 게임사는 많지 않고, 지난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도쿄게임쇼 역시 현재까지는 스마일게이트 정도를 제외하면 적극적인 참가 소식이 드물다. 지난해 게임사들이 앞다퉈 신작을 공개하며 경쟁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물론 이유는 있다. 환율 부담과 전시 비용 상승으로 참가 비용은 크게 늘었다. 게임 하나를 알리기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게임쇼 대신 온라인 쇼케이스나 자체 방송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을 흔들 만한 신작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펠어비스의 붉은사막,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같은 기대작이 있음에도 업계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예전처럼 게임 하나가 산업 전체의 기대감을 높여준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사이 중국 게임사들은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 상당수를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게임쇼의 중심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게임인데, 국내 게임사는 보여줄 작품을 고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쇼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다. 산업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무대다. 참가 기업이 줄고,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고, 공개할 신작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산업의 활력에 전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게임쇼 시즌이 조용한 이유는 게임쇼의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일 만큼 강력한 K게임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지금 국내 게임업계에 필요한 것은 참가 숫자가 아니라, 다시 시장을 설레게 만들 새로운 성공작이다.

/vitna@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 (음 5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앞서가지 마세요. **6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쯤반길입니다. **72년생** 구실을 조심하고 거래는중개인을 통하세요. **84년생** 떠난 연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  **49년생**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흰합니다. **73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남도 보고 뺨도 따졌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  **50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  **52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구나. **64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릴 것입니다. **76년생** 한 팔을 거둬들이 이익이 됩니다. **88년생**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옵니다.
-  **53년생**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승승장구합니다.
-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가망동 하지마세요. **78년생** 북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길합니다. **90년생** 그동안 준비해 온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합격합니다.
-  **55년생**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67년생**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입니다. **79년생** 지갑 조심 돈 조심 불량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운입니다.
-  **56년생** 사비에 가담치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실을 차단하세요.
-  **57년생** 서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  **58년생**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합니다. **70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94년생** 새로이 시작 하려는 일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95년생**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 김상회의 四季 재(齋)의 공덕

제사(祭祀)는 신이나 돌아가신 조상의 혼령 등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쳐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요즘은 집에서 제사(祭祀)를 지내는 집이 거의 없다. 혹여 선명부도 기제사를 지내더라도 절에 가서 모시는 경우도 많아졌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집에서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기제를 대신하며, 천주교에서는 가정 제례집이 있어서 성당에서 제사 미사를 합동으로 올린다. 전통적인 제례는 조선 시대 때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으로 제례가 전승되어 온 것인데, 보통은 ‘4대봉사’(四代奉祀)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제주)의 4대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낸다. 5대조부터는 사당에서 신위를 모시지 않고 묘소에서 묘사(墓祀)를 지내는데, 지금도 성씨의 종가를 비롯한 종친회가 주관하는 시제(時祭)에서는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제사를 모시곤 한다.

공적이 큰 조상 또한 불천위로 지정되어 세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낸다. 사람이 명이 다하여 육신과 정신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고 나면 업의 결과물인 식(識)은 알게 모르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혼 또는 영혼이라 불리는 식은 사후에도 같은 DNA를 가진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조상의 DNA나 기파(氣波)가 후손들의 업식에 작용을 한다고 유교에서도 믿었고, 4대 후손까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기간을 4대까지 한다. 살아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불선업이 있을 터 사람이 명(命)을 마치고 중음을 떠도는 49일간 생전의 선하고 악한 업을 저울질 받아 육도 윤회(六道輪回)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인도 중국을 비롯한 불교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이다. 여기에서 49제나 천도제가 유래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7	4
9	3		1				
7			3		2		9
		4	6		5	1	
	7						4
		9	4		3	7	
	9		2		8		7
				4		9	8
3	8	7					6

6		9	2				5
	1						9
			7		5		2
		5	4	3	6	2	8
			1	7			
9		6	5	7	2	3	
5			3		4		
4	7						5
					9	5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2	3	4	5	6	7	8	9
8	6	9	7	2	1	5			
7	9	8	5	3	1	6	7		
6	2	1	7	8	4	9	3		
5	7	8	1	2	6	9	4		
4	8	1	9	7	5	3	2		
3	6	7	9	4	8	5	1		
2	9	5	1	2	7	6	8		
1	4	6	7	8	9	2	1		
9	1	2	3	4	5	6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크리스티앙 무엑스의 여정... 율리시스의 우아한 존재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3

두 개의 포도나무 뿌리가 있다. 하나는 곧고 길게 뻗어 있고, 다른 하나는 구부러져 지표면으로 솟구치고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인공관개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일지 마음 속으로 정해보자.

정답은 예상과 달리 땅 속으로 뿌리를 길게 뻗은 나무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애쓴 결과다. 땅 속 깊은 곳에서 그대로 뻗어올린 미네랄과 땅의 고유의 개성이 포도알로, 그리고 와인으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나파밸리 율리시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앙 무엑스(Christian Moueix·사진)는 최근 방한한 자리에서 “5~6m까지 깊게 내린 뿌리로 와인은 테루아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게 된다”며 “식재와 수확, 양조까지 와인에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와인업계에 설명이 필요없는 인물이다. 보르도 우안의 전설적인 와인너리 샤토 페트뤼스를 38년간 이끌며 와인 양조의 새로운 기준



미국 나파밸리 율리시스 빈야드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앙 무엑스(사진)가 와인 율리시스 라벨의 그림처럼 활 시위를 당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을 세웠고, 현재도 뽀므롤과 생페밀리옹에서 8개의 샤토를 운영 중이다. 그는 가문의 전설에 머물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나파밸리에서도 도미니쿠스 에스테이트로 테루아의 독보성을 알리고 컬트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날 스토리지만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다시 한 번 길을 떠났다. 2008년 율리시스 빈야드(Ulysses Vineyard)를 인수하면서다. 같은 나파밸리에 서도 도미니쿠스가 오프밸리라면 율리시스는 오크빌에 위치했다. 보르도 메독에서도 마고와 생줄리앙, 포이악 등이 각각 다른 개성이 있는 것처럼 나파밸리 역시 차

이가 있다. 포도나무부터 다시 심어야 하는 곳이지만 테루아에 대한 확신이 섰다.

알프레드 테나슨의 시 ‘율리시스(Ulysses)’에서 그리스 신화 속 율리시스(오디세우스)가 가나긴 모험을 거쳐 고향에 돌아갔지만 다시 도전에 나섰듯이 말이다. 그래서 포도밭도, 와인 이름도 율리시스다. “분투하고, 추구하며, 발견하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시구에서 비롯됐다. 끝나지 않는 항해와 탐구를 노련한 시는 크리스티앙 무엑스가 평생에 걸쳐 테루아를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와 닮아 있다.

율리시스는 카베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카베네 프랑과 빠디 베르도를 조금씩 더



왼쪽부터 율리시스 2014, 2016, 2018, 2021 빈티지. /안상미 기자

해 완성했다. 와인에 크리스티앙 무엑스를 담은 게 아니라 율리시스 포도밭 자체의 개성을, 그리고 해마다 펼쳐진 기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2014년은 다시 심은 포도나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해이자 지진의 빈티지다. 수확이 얼마남지 않은 8월에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있었는데 포도의 맛이 달라졌다. 보통 재해라고 하면 안 좋은 영향을 떠올리겠지만 포도는 오히려 맛이 좋아졌다.

그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토양이 섞였고, 강수가 올라오면서 포도나무에 좋은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10년이

흘쩍 넘었지만 여전히 좋은 산도와 벨벳 같은 질감이 잘 어우러진다.

2018년은 나파밸리에서 그레이트 빈티지로 꼽히는 해다. 좋은 발이 좋은 해를 만나 진기를 발휘했다. 나파밸리 특유의 풍요로운 과실미와 보르도식의 구조감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집중도 있는 과실이 매끄럽게 광택이 나는 타닌 위에 펼쳐지고, 층층이 다른 모습이 잘 짜여 있다.

크리스티앙 무엑스는 “율리시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유일무이한 ‘존재감’”이라며 “2018 빈티지가 딱 그런 모습”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2018 빈티지는 프랑스 와인인가 고개를 가웃할텐데 2021 빈티지는 미국 와인이라 확인할 만한 스타일이다. 잘 익은 과실향 뒤로 단맛이 느껴진다. 가뭄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포도알은 깊고 강렬하게 응축됐다. 잔당감으로 매운 음식과도 어울릴 와인이다.

율리시스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섰듯 크리스티앙 무엑스의 여정 역시 끝이 아니다. 힌트는 아르고스다. 20년 만에 귀향한 율리시스를 유일하게 알아보고 반긴 중령의 이름이다.

마무리도 테나슨의 시구로 한다. “나는 여정을 그만둘 수가 없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다 마셔버리겠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롯데시네마, 극장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월드타워서 ‘이상준쇼-솔로파티’ 개최  
오픈 1분 만에 매진... 맞춤 먹거리도

롯데시네마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개그맨 이상준의 참여형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쇼-솔로파티’를 선보이며 영화관의 공간적 활용 범위를 공연 콘텐츠까지 확장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6일과 7월 10일, 2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MBC C&I가 주최·주관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이상준쇼 - 솔로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관객 참여형 코너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연애와 결혼, 일상 속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토크와 즉흥 소동이 어우러지며, 이상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들의 관심도 뜨겁다. 공연은 예매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이는 영화관이 단순한 영화 상영 공간을 넘어 라이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롯데시네마는 극장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공연 몰입도를 극대화할 계획이



다. 관객들은 프리미엄 소파석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대형 스크린과 극장 음향 시스템을 통해 대위 출연자의 표정과 디테일한 연기, 객석의 생생한 반응까지 더욱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의 즐거움을 더할 맞춤형 먹거리도 마련했다. 롯데시네마는 시원한 맥주와 나초로 구성된 ‘이상준쇼 콤보’를 출시해 공연 관람과 식음료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그동안 라이브뷰잉, 팬미팅, 라이브 공연, 이머시브 콘텐츠 등 다양한 얼터너티브 콘텐츠를 선보이며 영화관의 역할을 확장해왔다. 이번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역시 기존 공연장과는 다른 극장만의 관람 환경을 활용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공개 코미디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개그맨 이상준은 최근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월급이라는 단단한 성에서 쌓는 노후설계

퇴사와 해고(파이어)가 미터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월급이 아팔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성의 터전이라고 외치는 직장인의 에세이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작가의집은 유한양행 재직 23년 차인 김규철(필명 방하죽) 저자의 신간 『월급이 답이다』를 펴냈다.

‘23년 차 월급쟁이가 아들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이 매일의 일상을 쌓아 올린 경이로운 성장 기록이다. 지방대 문과 출신의 ‘수포자’였던 저자는 40대 중반 우연한 계기로 배움을 시작한 후, 이공계를 넘나들며 국가기술자격 53개를 포함해 총 10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통근길을 ‘움직이



월급이 답이다  
김규철 지음 / 작가의 집

는 도서관’ 삼아 6년간 300권의 책을 읽었으며, 누적 방문자 179만 명에 달하는 블로그를 키워내며 ‘회사 안에서 자라는 사람’의 본모습을 증명했다.

저자는 ‘월급쟁이는 현대판 노예’라는 SNS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조언한다. 대

신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자산 위에 독서, 자격증, 기록을 엮고, 국민퇴직·개인연금에 배당을 더한 ‘4중 연금 구조’를 구축하라는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제시한다.

특히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재직자로서, 유일한 박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잇기 위해 책 인세의 1%를 유한재단에 기부하기로 해 책의 의미를 더했다.

실패의 기록과 부끄러운 기억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이 책은 ‘떠나지 못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한 사람의 기록이다. 이 책은 오늘날 새벽 일출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이 시대 모든 직장인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확신을 전한다.

###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이찬성 대표가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한 통찰을 담은 철학 소설 《AI가 해고한 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론 머스크의 효율주의 행보에서 모티브를 얻은 우화형 소설이다. AI로부터 대체 가능성 93.3%를 통보받은

15년 차 직장인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48시간의 과정을 그린다. AI가 인간을 단 다섯 줄의 데이터로 요약하고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 숫자나 성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탐구한다.

독자가 직접 ‘나만의 한 문장’을 정리



하며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이 함께 제공된다.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멈추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통해, AI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자리를 찾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 네타냐후 “이란 공격, 트럼프 허가 구한 적 없다... 계획 알렸을 뿐” /사진 뉴시스  
▲ 젤렌스키 “러, 모스크바·크림대교 방어 강화... 방공망 재배치”

▲ 프랑스, 폭염에 ‘반(反) 에어컨’ 금기 흔들... 한 경주의자도 “일부 필요”  
▲ 中 관영 매체 ‘군산복합체’ 이어 ‘신군국주의’ 잇단 日 비판

▲ 트럼프 “모든 기관에 베네수 신속지원 지시... 가까이 도울 것”  
▲ 러 야당 부대표, 우크라이나 비판 SNS 올렸다가 징역 7년



농심  
러시아 거점 확보  
글로벌 성장 속도  
나



Life

유한양행  
100년 여정 담고  
혁신 창출  
L2



# 대나무숲 지나 산 풍경까지... 조경으로 이어진 자연의 확장

## 아파트의 미학(美學)

### 힐스테이트 회릉역 파크뷰

도봉산, 사패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밀접  
단지 조경과 이어지는 생활 인프라 풍성

언덕지형 활용한 산책로·휴게공간 배치  
다양한 수종 식재... 다채로운 풍경 더해

석가산 주변 별장처럼 지어진 티하우스  
단지 내 정원, 주변 산세 한눈에 들어와  
대나무정원 그늘 아래 아늑한 쉼터 조성  
잔디공원 곡선 활용한 서어나무 언덕길

서울 지하철 1호선 회릉역에서 걸어서 10분가량 이동하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회릉역 파크뷰'가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는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 거리이며 시청역과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가깝다.

향후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회릉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의정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호원중학교와 서부로를 잇는 회릉IC 계획도 미래 교통 호재로 꼽힌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단지 주변에 밀집해 있다. 호원초와 호원중이 도보권에 있고, 호원동 학원가와 노원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코스트코, 의정부시청 등 쇼핑·문화·행정시설도 생활권 안에 있다.

단지 이름의 '파크뷰'는 주변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종량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이 가까워 단지 안팎으로 녹지 여건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부에도 중앙광장과 잔디광장, 힐링가든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마련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남녀 구분 독서실 등이 있다. 현대건설의 중간소음 저감기술인 'H 사일런트 룸 시스템 1', 지하주차장 견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등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단지 입구에서 가까이 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에는 석재 마감의 긴 화랑이 이어진다. 피트니스와 골프, 사우나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해 통로를 머무는 공간으로 바꿨다.

커뮤니티 시설 앞에는 거대한 나무 형상의 물놀이터가 있다. 고층 주거동 사이에 놓인 선명한 초록색 구조물이 시선을 끈다. '자이언트 그린 트리'라는 이름처럼 나무 기둥과 잎을 연상시키는 모양이다. 수경시설과 미끄럼틀, 놀이 구조물이 결합된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다.

물놀이터 주변으로는 미국풍나무가 둘러서 있다. 그사이로 청록색 탄성 포장 산책로가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휴게공간과 운동시설이 차례로 나타난다. 휴게공간은 광장 한쪽에 몰려 있지 않고 산책로의 굽이마다 배치돼 있다. 흰색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이 야외 카페 같다. 중간 벤치는 평평한 관형이 아니라 몸의 곡선을 받쳐듯 완만하게 휘어진 형태다. 놀이공간과 휴식 공간, 주민 운동시설이 따로 떨어진 쉼터처럼 놓이지 않고 하나의 길 위에서 연결되는 구조다.

단지 안쪽에는 '메타세쿼이아 산책길'이 마련돼 있다. 단지의 언덕 지형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평평한 보행로가 아니라 풀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



석가산과 티하우스 '풍경이 머무는 곳'.



잔디 언덕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지는 서어나무 언덕길.



1 단지 언덕지형을 활용한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2 계수나무, 팽나무, 대나무, 황금편백 등을 심은 맞이숲.  
3 그늘 아래 숨어있는 쉼터가 마련된 대나무정원.  
/성채리 수습기자

라 살짝 오르는 구조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벤치가 나오고, 반대편으로 다시 내려가면 평지 산책로와 이어진다. 평범할 수 있는 산책에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공간이다.

놀이터에서 시작한 산책로는 청록색 계단형 휴게무대로 이어진다. 뒤로는 나무가 둘러서고, 앞으로는 넓은 바닥 공간이 있어 작은 야외공연장 같은 느낌을 준다. 길 끝의 '맞이숲'은 계수나무숲, 팽나무숲, 대나무숲, 황금편백숲 등 여러 수종을 나눠 심어 걸을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도록 했다. 계수나무는 달콤한 향을, 팽나무는 넓은 그늘을, 대나무숲은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더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특히 대나무숲은 길가를 따라 촘촘히 심겨 있어 걷기만 해도 한결 시원한 느낌을 준다. 집으로 가는 짧은 길에 계절의 변화와 숲의 느낌을 담았다.

단지 한편에는 '풍경이 머무는 곳'이라는 공간이 마련됐다. 석가산과 나무 사이에 따로 숨어 있는 작은 별장처럼 보인다. 주변에는 바위와 소나무를 배치한 석가산이 있고, 그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2층에 오르면 시야가 더 넓어진다. 아래로 석가산과 산책로가 보이고, 멀리로는 단지 너머 산세가 눈에 들어온다. 물소리를 들으며 바위정원과 주변 산을 여러 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 '파크뷰'라는 이름이 가장 잘 와닿는 공간이다.

참나무 그늘 운동쉼터에는 워업과 필라테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놓여 있다. 기구 옆에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붙어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작은 차양도 설치돼 있어 햇빛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게 했다.

속삭이는 대나무정원은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쉼터다. 천장이 낮게 덮인 통로 양옆으로 대나무와 식물이 뻗어 있다. 통로 끝으로는 밝은 산책길이 열린다. 혼자 조용히 쉬기에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다.

서어나무 언덕길은 언덕 지형 조경이 가장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평평한 길만 이어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조경과 달리 잔디 언덕 사이로 산책로가 굽어 들어간다. 가까이에는 잔디 언덕과 나무가, 멀리에는 초록 산 능선이 보여 단지 안팎의 자연이 이어진다. 아파트 동 사이에서 잠시 산속에 들어온 듯하다. 단지의 녹지는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외곽 너머 산 풍경까지 시야에 들어오며 조경의 범위가 확장된다. 내부는 산책로와 정원이, 외부는 자연 조경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이어진다. '힐스테이트 회릉역 파크뷰'라는 단지 이름처럼 역세권 안에서 산과 가까운 풍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홀런 선두 질주·타점 선두 위협...LG 오스틴, 구단 최초 역사 도전장  
▲'예상 밖 교체' 김민재 "종아리 부상...심각한 수준 아냐"  
/사진 뉴스시스

▲홍명보 "손흥민 기용, 상대 힘 빠진 후반이 낫다고 판단"  
▲광화문은 침묵, 사무실은 한숨...쏟아진 분위기 속 끝난 남아공전

▲박지성, 축협·홍명보 직격 "2014년 월드컵 잘못 반복"  
▲설영우 "악의적 비방·인신공격, 선처 없이 강경 대응"